

제287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2019년도 공무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강 원 도 의 회  
(기 획 행 정 위 원 회)



# 목 차

I. 공무국의 출장목적 .....	1
II. 공무국의 출장개요 .....	1
III. 공무국의 출장 방문국 일반현황 .....	4
IV. 공무국의 출장 공식기관 방문 .....	15
▣ 헤센주 의회 .....	15
▣ 헤센주 정치교육원 .....	21
▣ Mother Center .....	28
▣ 오버하우젠 시청 .....	34
▣ Zollverein(출폐하인) .....	40
▣ Wasted Lab .....	46
V. 공무국의 출장 성과(총평) .....	51
※ 별첨 자료 .....	54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2019년도 공무국외 출장 결과보고서

독일, 네델란드의 지방자치제도와 운영실태, 행정 및 정치체계 등에 대한 국외 사례의 심도 있는 고찰과 자료수집 활동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위한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을 실현하고자 함.

## I 공무국외 출장 목적

- 독일 자치분권 및 민주주의 운영 현황 현지 시찰
  - 독일 정치교육의 특색, 민주시민교육과정 운영현황 확인 및 청취
- 독일, 네델란드 인프라 구축 현황 확인 및 정책 교류를 위한 논의
  - 주요정책 운영 현황 및 벤치마킹
- 독일 헤센주 의회 교류 추진
  - 헤센주 의회 운영현황 청취 및 의회 교류협력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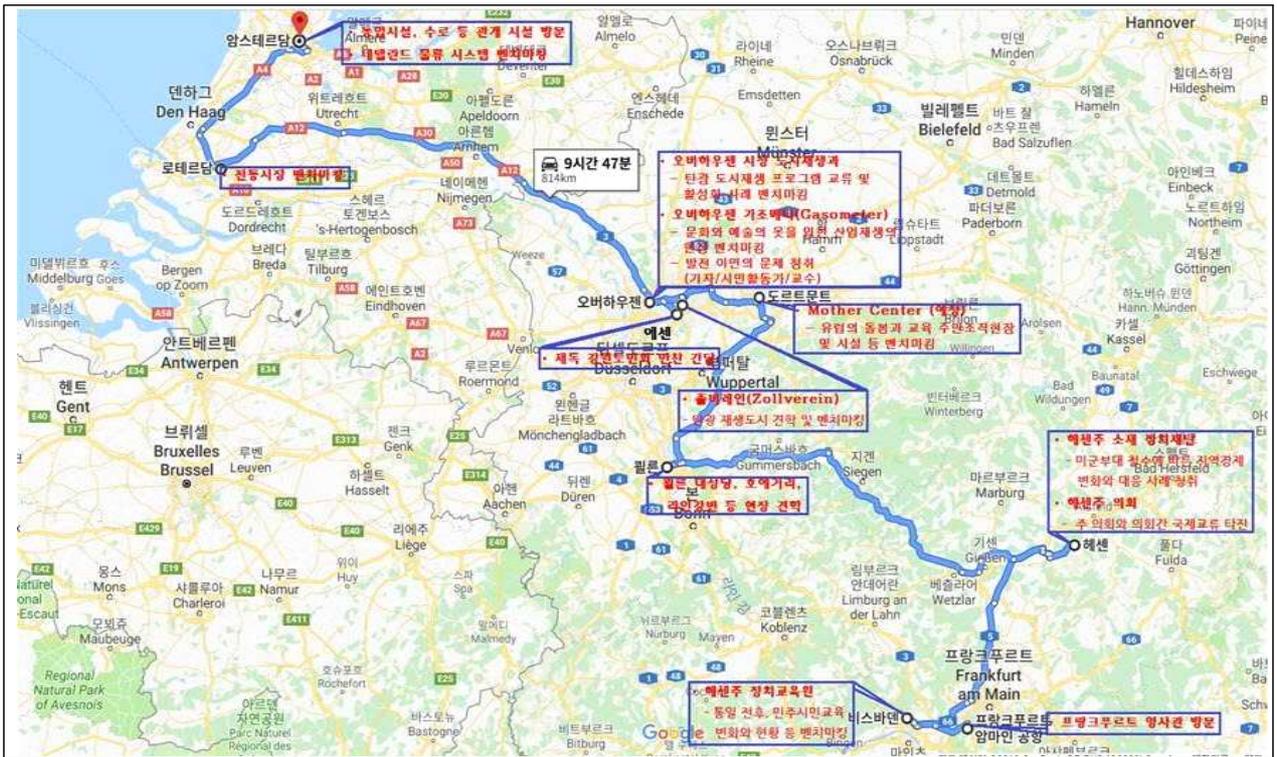
## II 공무국외 출장 개요

- 기 간 : 2019. 12. 15.(일) ~ 12. 23.(월), 7박 9일
- 장 소 : 독일, 네델란드
- 방 문 단 : 10명(의원 6, 전문위원실 2, 국제관계대사 1, 사무처 1)
  - 도의원(6) : 곽도영 위원장, 허소영 부위원장,  
김경식 · 김규호 · 박병구 · 안미모 의원
  - 전문위원실(2) : 김강민 의정담당(수행), 신호준 주무관(수행)
  - 강원도 국제관계대사(1) : 백범흠 대사(현지 기관 안내)
  - 사무처(1) : 김윤준 주무관(수행)
- 주요내용
  - 독일·네델란드의 자치분권과 직접민주주의 사례 연구
  - 독일 헤센주와의 정책 교류를 위한 논의
  - 문화 및 선진 정책 탐구 등

○ 공무국외출장자 명단

구분	연번	직급(위)	성명	영문명	비고
기획행정위원회 (6)	1	위원장	곽도영 (남)	Kwak / Doyoung	
	2	부위원장	허소영 (여)	Heo / Soyoung	
	3	위원	김경식 (남)	Kim / Kyeongsik	
	4	위원	박병구 (남)	Park / Byeongku	
	5	위원	안미모 (여)	Ahn / Mimo	
	6	위원	김규호 (남)	Kim / Gyuhoo	
강원도 (1)	7	국제관계대사	백범흠 (남)	Beck / Bumhym	
의회 사무처 (3)	8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의정담당	김강민 (남)	Kim / Gangmin	
	9	기획행정전문위원실 주무관	신호준 (남)	Shin / Hojun	
	10	의사관실 주무관	김윤준 (남)	Kim / Yoonjun	

○ 이동경로



○ 주요 상세일정

일자	지 역	시 간	세 부 일 정
제1일 12/15 (일)	인 천	13:20	인천 출발 (출국)
	프랑크푸르트	17:30	프랑크푸르트 도착 (입국)
제2일 12/16 (월)	프랑크푸르트	10:00	○ 프랑크푸르트 영사관 방문 및 오찬 (영사관 관저)
		14:00	○ 프랑크푸르트 출발 / 비스바덴으로 이동
제3일 12/17 (화)	비스바덴	10:00	○ 헤센주 의회 - 주 의회와 의회간 국제교류 타진
		14:30	○ 헤센주 정치교육원 - 통일 전후, 민주시민교육 변화와 현황 등 벤치마킹
제4일 12/18 (수)	비스바덴	08:00	비스바덴 출발 / 쾰른경유 / 도르트문트로 이동
	도르트문트	15:00	○ Mother Center - 유럽의 돌봄과 교육 주민조직현장 및 시설 등 벤치마킹
제5일 12/19 (목)	도르트문트	09:00	도르트문트 출발 / 오버하우젠 이동
	오버하우젠	10:00	○ 오버하우젠 시청 도시재생과 - 탄광 도시재생 프로그램 벤치마킹
		14:00	오버하우젠 출발 / 보훔 이동
	보 훔	18:00	○ 재독 강원도민회 만찬 간담
제6일 12/20 (금)	보 훔	09:30	보훔 출발 / 출페하인 이동
	출페하인	10:00	○ 출페하인(Zollverein) - 탄광 재생도시 견학 및 벤치마킹
		14:30	졸버레인 출발 / 로테르담으로 이동
제7일 12/21 (토)	로테르담	10:00	○ 로테르담 마르크트할 전통시장 벤치마킹
		12:00	○ 로테르담 출발 / 헤이그 경유(오찬, 네델란드 영사관) / 암스테르담 이동
	암스테르담	14:30	○ wasted lab 방문 - 플라스틱 재활용을 통한 도시재생사업
제8일 12/22 (일)	암스테르담	10:00	○ 풍차마을, 농업 수로 시스템 견학
		14:00	○ 항구 물류시설 견학
		18:30	암스테르담 공항 도착, 출국 수속
		21:20	암스테르담 출발 (출국)
제9일 12/23 (월)	인 천	16:00	인천국제공항 도착 (일정종료)

### Ⅲ 공무국외 출장 방문국가 일반현황

#### 1 독일

##### 1 국가개요

국 명	독일연방공화국(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독일어명: Bundesrepublik Deutschland)
위 치	서유럽
면 적	357,578km <sup>2</sup> (한반도의 1.6배, 대한민국의 3.6배)
기 후	온대성, 연간 섭씨 -1.9~20.3도 ('18년 연평균 10.5도)
수 도	베를린(Berlin)
인 구	8,302만 명 (독일인 87.8%, 외국인 12.2%)('18년 기준)
주요 도시	Berlin(375만 명), Hamburg(183만 명), Muenchen(154만 명) Koeln(109만 명), Frankfurt(75만 명) ('18년 12.31일 기준, Hamburg은 '18년 7.31일, 뮌헨 '18년 10.30일 기준)
민족(인종)	게르만족
언 어	독일어
종 교	카톨릭(27.7%), 개신교(25.4%), 이슬람(5.5%), 무교(37%), 기타(4.4%)
정부 형태	내각책임제
국가 원수	○ 대통령 Frank-Walter Steinmeier: 국가 원수 - 취임일: 2017.3.19., 임기: 5년 ○ 수상 Angela Merkel - 취임일: 2005.11.22., - 재선: 2009.10.28., - 3선: 2013.9.22. (단독 과반수득표 실패로 연정 구성), - 4선: 2017.9.24. (단독 과반수 득표 실패 현재 시민당(SPD)과 연정)

## ② 독일 경제현황 및 전망

□ ECB, '19년 미중 통상분쟁 장기화 및 브렉시트 위기 지속 등에 따른 경기부진으로 추가 양적완화 조치 가능

○ (추가 양적완화 조치 시사) 유로존의 성장을 견인해 왔던 독일경제의 둔화세가 확산해지면서 유로존 경제의 자생력 부족에 따른 추가 완화 필요성 대두

\* QE 정책은 '15.3월 이래 지속, '18년 1월~9월까지 국채 매입규모를 월 300억 유로로 감축, '18년 10월부터 월150억 유로로 감축 후 연말종료

- ECB는 중기 물가수준 목표치(2.0% 근접 하회) 달성을 위해 충분한 정도의 완화적 통화정책을 유지해 나갈 예정이나, '19년 6월 시장 기대 인플레이션 하락과 관련하여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추가 완화조치 시사

\* '19년 7.31일 美연준 역시 기준금리를 기존 2.25~2.50%에서 2.00~2.25%로 0.25%포인트 인하, 글로벌 무역분쟁과 더불어 유로존과 중국을 중심으로 경기둔화가 본격화하는 흐름에 대한 선제적 대응으로 평가

- ECB 드라기(Draghi) 총재, 채권 매입 재개를 가용 정책수단 중 하나로 언급

\* ECB는 중기 인플레이션 전망이 목표치에 미치지 못할 경우 포워드 가이드스(Forward Guidance) 강화 및 새로운 자산매입 프로그램 등 적절한 조치 실행 예정

○ (저금리 기조) '19년 7.25일 주요 정책금리 동결로 저금리 기조는 지속 유지, '19년 유로존 경기 하방 리스크가 크고, 인플레이션 둔화로 '19년 전망 수치가 1.4%('19년 7.10일 기준 1.5% 대비 하향 조정)로 목표수치인 2%에 이르지 못하고 있어 필요 시 금리 인하 가능성 시사

\* ECB의 초저금리 (0%, '16. 3.10~), 예치금리 0.3%→0.4%로 마이너스 금리 지속, 최근 ECB는 정책금리 조정시기를 '19년 말에서 '20년 상반기로 연기, '20년까지 현 정책금리 수준 또는 더 낮은 수준 유지 계획

○ (환율 변동성) 미·중 무역협상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 유로존과 미국의 성장세 및 통화정책 결정 등이 주요 변수로 작용해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유로화 환율은 독일 제조업 수주가 예상보다 부진하면서 달러 대비 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

\* 국제금융센터, 중기적으로 미 연준 금리인하 선반영으로 국채 금리 하락 여지가 축소되면서 달러는 '18년 말 대비 강보합 전망

- 일부 투자은행들은 유로지역 경기 및 인플레이션 둔화, 이에 따른 ECB의 추가 완화조치 가능성을 반영하여 달러 대비 환율 전망치를 소폭 하향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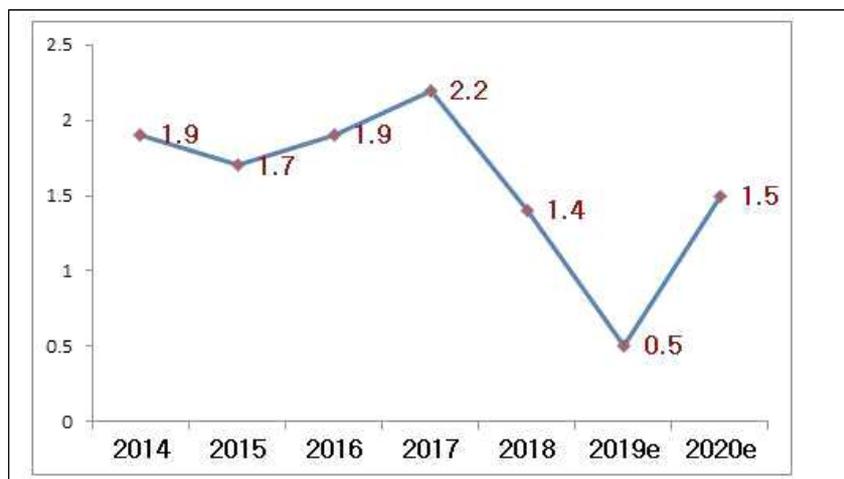
\* Paribas, Standard Chartered, Nomura, Citi, JP Morgan, UBS

□ 글로벌 불확실성 지속으로 '19년 0.5%, '20년 1.5%의 완만한 경제 성장전망

- ('18년 수출신기록 경신) 독일 글로벌 통상분쟁과 이에 따른 경제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수출 신기록 달성, 수입 역시 호조
  - 단, 수출 증가율은 전년도 6.2%에 못 미쳐 성장 속도는 둔화, 수입증가폭이 수출을 상회해 무역수지는 소폭 감소
  - 특히 국제통상분쟁에 따른 경기 냉각과 브렉시트 우려가 성장 저해요인으로 지목
  - \* '18년수출1조3,179억유로(+3.0%), 수입 1조900억유로(+5.7%),무역수지 2,278억 유로
- '19년 4월 독일 정부, 경제 전망을 두 차례 하향 조정('18년 가을 1.8% → '19년 1월 1.0% → 0.5%) 발표, '20년 1.5%의 완만한 성장 전망
  - 경기전망 하향 조정은 브렉시트와 미국의 대 EU산 자동차 관세 부과 위협 등 대외 불확실성과 미래기술 선도역량 부족 등의 대내요인\*
  - \* 일례로 충전스테이션 슈퍼차저 관련 Tesla가 주도, 지멘스는 실시간 모바일 통신 5G 기술을 선도할 수 있는 獨 유리섬유 전문기업 Coriant를 美Infinera에 매각, 이에따라 중국 화웨이에 대한 의존도 증가
  - \* 킬 세계경제연구소(ifw), 경기침체의 우려는 無, 할레 경제연구소(IWH), 장기간 지속되어 온 독일경제의 상승세가 끝나가고 있다고 밝히고, 경기주요 하락 요인으로는 마-중 및 마-EU간 무역갈등으로 촉발될 수 있는 독일의 수출약세와 5G와 같은 미래기술분야에 대한 시장 리더기업의 부재를 지적
  - 또한 트럼프發 통상분쟁 장기화에 따른 중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경기둔화가 독일 제조업의 수주 감소로 이어지며 수출경제인 독일에 직·간접적 타격
  - 무역분쟁 향방에 따른 불확실성이 소비자의 신뢰와 투자자 및 기업의 투자 결정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

<독일 GDP 성장률 추이>

GDP 성장률(%)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9	1.7	1.9	2.2	1.4	0.5	1.5



자료원: 독일연방통계청, 독일정부('19년과 '20년은 전망치)

### 3 독일의 교역동향

#### □ 주요 수출국 및 수출품목

- (수출국) '19년 4월 누계 기준 독일의 주요 수출국은 미국, 프랑스, 중국,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등이며, 영국을 제외한 기타 국가로의 수출은 꾸준한 증가세
  - 한국은 19대 수출국으로 대 한국 수출 규모는 56억 8,000만 유로, 전년 대비 -10.1% 감소세 기록
- (수출품목) '19년 4월 누계 기준 독일의 주요 수출 품목은 자동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인혈 및 치료용·예방용·진단용 동물의 피·면역물품, 기타 항공기 등으로 전년 대비 4, 5위 순위만 변동
  - 수출 1위 품목인 자동차를 위시해 자동차부품, 의약품 등 3대 품목의 수출 실적이 저조한 가운데, 기타항공기 수출만 전년 대비 20.7%의 비교적 높은 증가율 기록

#### <독일의 5대 주요 수출품목>

(단위: US\$백만, %)

순위	2018년			2019. 4월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1,320,987	3.0		446,901	1.7
1	자동차	134,838	-5.8	자동차	44,911	-8.6
2	자동차부품	57,022	3.1	자동차부품	18,834	-3.8
3	의약품	47,114	1.0	의약품	15,886	-2.0
4	기타항공기	25,692	-5.4	인혈 및 치료용· 예방용·진단용 동물의피·면역물품	8,052	2.6
5	인혈 및 치료용· 예방용·진단용 동물의피·면역물품	24,579	13.3	기타항공기	7,961	20.7

자료원 : K-Stat

#### □ 주요 수입국 및 수입품목

- (수입국) '19년 4월 기준 독일의 주요 수입국은 네덜란드, 중국, 프랑스, 벨기에, 폴란드, 이탈리아, 미국 등으로 전년 대비 순위의 변동 외, 큰 변화는 없으며, 한국은 25위
  - '19년 4월 누계 기준 대한국 수입은 30억 9,100만 유로 기록, 전년 동기 대비 10.5%의 증가율 기록
- (수입품목) '19년 4월 기준 독일의 주요 수입품목은 전년 동기와 유사하게 자동차, 자동차부품, 석유 및 역청유(원유), 의약품, 자동차료 처리기계 등으로 나타났으며, 자동차 부품을 제외한 기타 5대 품목의 수입은 안정적인 증가세 시현

### <독일의 5대 주요 수입품목>

(단위: U\$백만, %)

순위	2018년			2019. 4월		
	품목	금액	증감률	품목	금액	증감률
총계	-	1,088,475	5.4	-	372,711	4.3
1	자동차	52,011	1.9	자동차	18,834	9.9
2	석유및역청유(원유)	38,139	18.9	자동차부품	12,426	-5.9
3	자동차부품	37,021	1.4	석유및역청유(원유)	10,541	4.4
4	의약품	24,197	5.5	의약품	8,171	4.0
5	석유 및 역청유(원유제외)	21,758	20.3	자동차료처리기계	7,190	6.5

자료원 : K-Statt / Eurostat

## 4 한국과의 교역동향

### □ 수출입 교역동향

- (수출) '18년 對독일 수출은 전년대비 10.5% 증가한 U\$93.7억을 기록
  - '19년 6월 누계 기준 대독 수출은 전년도 수출기저효과 및 글로벌 경기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 부진과 더불어 일부 품목을 제외한 대다수의 품목이 감소세를 보이며, 전년 동기대비 기준 7% 감소한 U\$44.7억 기록
- (수입) '18년 대독 수입은 전년 대비 5.6% 상승한 U\$209억을 기록
  - '19년 6월 대독 수입은 U\$47.4억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15.8% 감소
  - 특히 미·중 무역분쟁이 장기화되며 중국의 경기둔화로 이어지며 국내 산업 및 소비자 수요에도 부정적 영향

### <한-독일 교역동향>

(단위: U\$백만, %)

연도	수출		수출		무역수지
	금액	증가율	금액	증가율	금액
2016	6,443	3.6	18,917	△9.7	△12,474
2017	8,484	31.7	19,749	4.4	△11,265
2018	9,373	10.5	20,854	5.6	△11,482
2019.6	4,465	△7.0	9,204	△15.8	△4,739

자료원 : KOTIS

## □ 주요 품목별 수출현황

- '18년 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수출품목이 높은 상승세를 나타내며 호조를 띠지만, '19년 6월 누계 집계 결과, 자동차, 반도체, 건전지 및 축전지, 자동차부품, 합성수지를 제외한 다수의 품목군에서 비교적 큰 폭의 하락세 시현
- '18년 전력용기기(+137.8%), 농약 및 의약품(+111.9%), 반도체(+27.8%), 기계요소(25.3%), 자동차부품(18.0%) 등의 주요 품목의 수출이 높은 증가세 기록, 특히 '16년 수출 49위였던 전력용기기는 '17년 272.2% 증가하며 20위로 상승한 데 이어 '18년 수출 11위, '19년 6월 9위 품목에 등극
  - '19년 6월 누계 집계 결과 자동차부품과 건전지 및 축전지 등의 경우 현지수요 증가와 더불어 안정세를 나타낸 반면, 대다수의 품목에서는 전년도 수출 기저효과와 글로벌 경기둔화와 미·중 무역분쟁 등 경기리스크 증가에 따라 뚜렷한 감소세
  - 반도체의 경우 선행투자가 이뤄지는 IT 인프라 투자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세와 더불어 생산제품 재고 소진을 위한 가격인하로 수출 감소 지속, 특히 전년도 호황에 따른 기저효과로 감소폭이 실질 체감폭 보다 확대돼 나타나는 상황
  - 한편, 건전지 및 축전지는 독일 내 E-모빌리티 보급 확대에 따른 신규 배터리 수요증가 및 국내 배터리 제조사의 선전으로 대독 수출 2위 품목으로 등극
  - 가장 증가폭이 큰 자동차 부품의 경우 업계 내 밸류 체인상의 변화를 통한 신규 부품수요 증가와 현지 완성차 및 Tier1의 아웃소싱 전략에 따른 신규 납품 기회 확대에 호조세

### <對독일 10대 수출품목>

(단위: U\$백만, %)

순위	품목	2018년		2019년 6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9,373	10.5	4,465	△7.0
1	자동차	1,595	△5.4	920	7.2
2	건전지 및 축전지	848	2.2	453	8.2
3	자동차부품	538	18.0	356	37.2
4	반도체	1,203	27.8	313	△44.9
5	농약 및 의약품	445	111.9	198	△16.5
6	합성수지	323	13.7	172	4.5
7	금속공작기계	264	35.9	126	△7.1
8	무선통신기기	322	17.3	108	△39.8
9	전력용기기	207	137.8	103	△26.8
10	기계요소	271	25.3	100	△24.9

자료원 : K-stat

□ 주요 품목별 수입현황

- '18년 전년도 기저효과에 따른 감소세를 나타낸 광학기기(△11.3%, 전년도 79.1%)나 농약 및 의약품(-1.9%, 전년도 17.4%)를 위시해 계측제어분석기(△7.7%) 수입이 감소한 반면, 자동차와 반도체가 각각 14.7%와 16.8%로 안정적인 증가세

<對독일 10대 수입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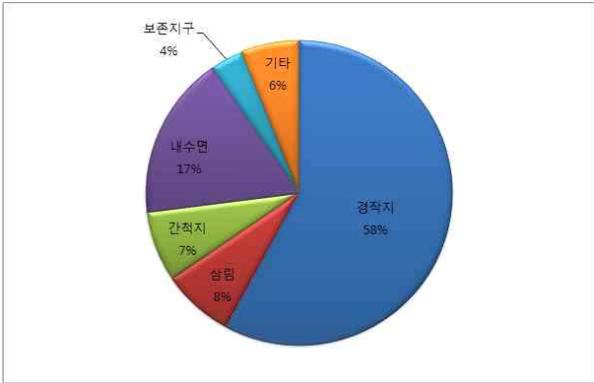
(단위: US\$백만, %)

순위	품목	2018년		2019년 6월	
		금액	증감율	금액	증감율
	총계	20,854	5.6	9,204	△15.8
1	자동차	5,423	14.7	1,973	△37.8
2	농약 및 의약품	1,058	△1.9	544	8.4
3	자동차부품	821	8.5	374	△8.3
4	계측제어분석기	857	△7.7	362	△16.2
5	원동기 및 펌프	666	2.3	325	2.7
6	기계요소	654	13.3	13.3	△9.0
7	정밀화학원료	639	8.4	295	△10.8
8	반도체	592	16.8	289	4.1
9	전자응용기기	405	8.3	230	24.2
10	광학기기	707	△11.3	209	△44.9

자료원 : K - stat

## 2 네델란드

### 1 국가개요

국 명	<p>네델란드 왕국</p> <p>▷ (네델란드어) Koninkrijk der Nederlanden</p> <p>▷ (영문)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p>
정부형태	<p>내각책임제, 양원제(상원: 75석, 하원: 150석)</p> <p>▷ 수상 : Mark Rutte(마르크 뤼터), 자유민주당(VVD)</p> <p>▷ 국가원수 : Willem-Alexander(빌렘 알렉산더) 국왕</p>
행정조직	<p>중앙정부 : 수상이 장관을 겸임하는 총무부 등 11개 부처로 구성</p> <p>지방정부 : Zuid-Noord Holland, Utrecht 등 12개의 주와 403개 지자체</p>
수 도	<p>암스테르담 (Amsterdam)</p> <p>※ 암스테르담은 공식수도, 행정/사법/입법부는 헤이그(Den Haag)에 위치</p>
언 어	네델란드어
인 구	17,292천 명 (2019년 2월 기준)
국토구성 및 면 적	<div style="display: flex; align-items: center;">  <div style="margin-left: 20px;"> <p>총 면적 41,526km<sup>2</sup></p> <p>경작지 57.9%, 산림 7.6%, 간척지 7.5%, 내수면 17.4% 보존지구 3.5%, 기타 6.1%</p> </div> </div>
종 교	카톨릭(32%), 신교(25%), 기타(5%), 무교(38%)

## 2 네덜란드 경제동향 및 전망

### □ 경제 동향

- (성장) 네덜란드 경제 기획국, 2019년 경제 성장률 1.5% 하향 조정
  - 최근 3년 간 유로존 평균 성장률(2.5%)을 웃도는 높은 성장률을 보였으나, 2019~2020년 각각 1.5% 하향 조정
  - 미·중 무역전쟁 및 영국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높아짐에 따라, GDP 성장률 기여율이 높은 수출 지표 큰 폭 감소
- (소비) 소비자 신뢰지수 4년 만에 하락세 기록
  - 민간소비 2018년 2.5%에서 2019년 1.5% 하향 전망
  - 가계의 구매력은 높은 고용률과 임금 상승에 따라 유지될 것이나 유럽 경제의 전반적인 하락세로 보합세
  - 소비자 신뢰지수(Consumer Confidence Index), 2015년 3월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으나 4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2, '19년 2월 기준) 전환
- (투자) 2018년 민간투자 4.2%에서 2019년 2.6% 전망
  - 유형고정자산 투자규모가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19년 1분기 3.8% 증가했으며 주로 주택, 사무실 건물, 인프라, 기계에 대한 투자로 분석 됨
  - 2019년 2분기 기업신뢰도는 전분기 대비 1.4p 소폭 상승하였으나 역사적으로 높은 수준이었던 전분기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정부지출) 세금감면정책 시행 등 정부지출 확대로 경기 부양
  - 민간 소비와 투자가 큰 폭으로 감소함에 따라, 이를 상쇄하기 위한 정부 지출을 1.1% → 2.4% 확대 전망
  - 이는 내각의 연정합의에 포함된 수단이행(교육 및 국방, 의료 서비스분야 지출확대)이 주요인
- (수출) 최근 3년 간 5%의 수출 증가세에 비교하여 역대 최저 증가 수치
  - 2017년 수출 전망 5.3% 에서 2019년 1.8% 큰 폭 하락 전망
  - 미중 통상 분쟁, 영국 브렉시트 노딜 가능성이 높아져 유럽산 자동차 관세부과 등 독일, 영국의 수출환경이 네덜란드 수출 지표 부정적 영향
  - 2019년 1분기 네덜란드 수출은 전년 동기 대비 1.1% 증가했으며, 기계 장비류 수출 및 수입품의 재수출은 증가하였으나 네덜란드 국내 생산품 수출 감소가 원인
- (노동) 고용과 노동공급이 동시에 증가, 낮은 실업률 유지
  - 2019년 1분기 정규직과 시간제 일자리는 전 분기 대비 5만 3,000개 증가하였으며 실업률은 2008년 경제위기 이전 최저치(3.6%)보다 낮은 3.4%로 나타남
  - 높은 임금상승률과 낮은 실업률에 따라 노동시장은 다소 경직된 모습을 보임

### 3 네덜란드 무역 · 투자 동향

#### □ 네델란드, 2018년 기준 세계 5위 수출국

- 2018년 IMF 발표 수출액 기준, 세계 5위 (2019년 2월 기준, 세계 4위)
  - 2018년 수출액 7,715억 달러로 전 세계 수출의 3.7%, 수입액은 6,205억 달러로 세계 수입의 3.2%를 차지함
  - 2007년 이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만 제외하고 매년 1조 달러 이상의 대외 교역규모 유지
  - 유럽국가 등으로 재수출되고 있음
- 2019년 2월 기준, 수출은 1,011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4.3% 증가
  - 네덜란드의 수출은 2018년 기준으로 6,122억 유로로 주요 수출국은 독일, 벨기에, 영국, 프랑스 순
- 2019년 2월 기준, 수입은 915억 유로로 전년 대비 3.8% 증가
  - 2018년 기준, 네덜란드의 수입액은 5,472억 유로로 주요 수입국은 중국, 독일, 미국 순
  - 높은 재수출 비중으로 주요 수출입 품목이 유사한 특징이 있음

### 4 한국과의 교역동향

#### □ 최근 수출입 동향

- 2019년 6월 기준, 對 네덜란드 수출 22.9억 달러, 수입 23.2 달러
  - 2015년 이후 주요 제품 무역량 증대로 2017년까지 수출 21%, 수입 45% 증가하였으나, 최근 유럽 경기 둔화로 인해 교역량 소폭 감소
  - 무역수지는 2008년 경제위기 당시까지는 큰 폭의 흑자세를 유지했으나, 2015년 수출이 급감하며 적자세로 전환, 2019년 5년 만의 무역 흑자 기록
- 2019년 6월 기준, 對 네덜란드 수출 9.1% 지속 하락세
  - 수출 소폭 감소에도 불구하고, 전기자동차(▲256.2%), 제트유 및 등유(▲36.7%) 등 수출 주력 품목이 높은 증가세
  - 국내 반도체 소자업체 투자 위축에 따라, 수입 품목인 반도체 제조용 장비(▼62.5%) 및 부품(▼39.2%) 하락세

## 5 한-네델란드 투자 동향

### □ 네델란드에 대한 투자 동향

- 네델란드의 대한 FDI(외국인 직접투자)는 우회투자 영향으로 매년 기복이 큼
  - '17년 연간 17억 1천만 달러로 표면상 EU내 대한 외국인 투자 주도
  - '18년에는 연간 투자액 13억 6천만 달러

### □ 주요 투자유치 분야

- 석유화학
  - 네델란드의 주력산업으로 Shell, AkzoNobel, DSM 등 글로벌 기업들이 포진해 있으며, 아시아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로 한국 선택
- 의료·바이오
  - 백신, 바이오시밀러 등 신약 개발을 위한 R&D 거점으로 투자 경향
- 반도체
  - 최대 반도체장비 생산기업인 ASML사가 2015년 경기도 동탄 첨단 산단에 반도체장비 생산 위해 5천만 달러 투자
- 하이테크 산업
  - 한국의 기술집약산업 강점으로 차세대 기술력 확보를 위한 M&A 거래 활성화 전망

### □ 주력 투자유치 분야 프로젝트 발굴 및 지원

- 반도체, 화학 등 양국간 시너지 발생 분야 투자유치 프로젝트 중점
- 네델란드는 반도체장비 강국이며 삼성전자 등에 대량 공급함에 따라 대한민국 제1의 수출 품목이기도 함. 더불어 ASML 등 관련 업체들은 대한 투자도 병행
- 네델란드 화학 산업은 매출액 560억 유로로 전체 GDP의 2.5% 정도이며, 수출의 18%, R&D 투자의 30% 비중을 차지. 석유화학을 포함하여 동 분야도 양국기업 간 협력 활발

## IV 공무국외 출장 공식기관 방문

### ① State Assembly of Hesse (헤센주 의회)

- ◇ 방문일시 : 2019. 12. 17.(화) 10:00
- ◇ 면담자 : Vice President Lortz
- ◇ 주소 : Hessische Landtag(State Assembly of Hesse)  
Schlossplatz 1-3 65183, Wiesbaden

#### □ 방문 목적

독일 헤센주 의회 구성 현황 및 정책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와 실질적 효과를 직접 체감하여 의회 정책반영 수요자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방안 연구와 교류협력 강화를 위하고자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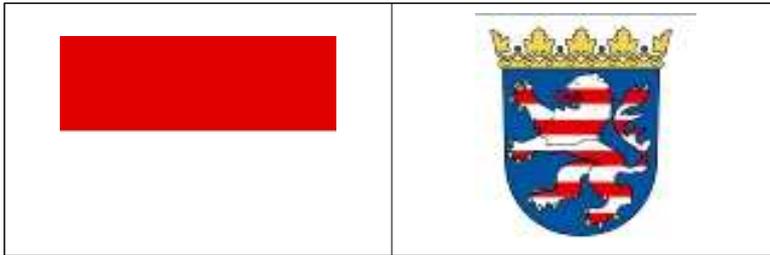
#### □ 헤센주 의회 구성

헤센주를 대표하는 의결 기관. 기민련(중도우파)과 사민당(중도좌파)의 지지가 고른 편으로, 독일 내에서 대표적인 스윙 스테이트(Swing State)이다. 금융업계가 많은 특성 탓에 신자유주의 성향인 자민당도 다른 지역보다 높은 지지율을 얻고 있으며, 녹색당이 제3정당으로 부상하고 있다. 현재 기민련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집권.

구분	총리/의석수	정당	비고
주총리	플커 보피어	기민련	
주의회	여당	40석	기민련
		29석	녹색당
	야당	29석	사민당
		19석	대안당
		11석	자민당
		9석	좌파당
연방하원	17석	기민련	
	12석	사민당	
	6석	대안당	
	6석	자민당	
	5석	녹색당	
	4석	좌파당	
연방상원	5석	-	

### < 헤센주 의회 개요 >

- 설립 / 면적 : 1682년 / 21,110km<sup>2</sup>
- 인 구 : 6,077,000명 (2016년 기준)
- 주 도 : 비스바덴 \*최대도시 : 프랑크푸르트
- 정부형태
  - 의 회 : State Assembly of Hesse라고 지칭, 의원 수 137명
  - 구 성 : 주총리 폴커보피어 / 임기 4년 / 기민련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



### < 배경 논의 >

- 부의장 Lortz는 CDU(독일기민당) 소속으로, 오펜바흐 출신이며, 5년 (이전에는 4년임기) 임기 11선을 역임
- 현재 헤센주에는 137명의 의원이 있으며, 이 가운데 과반인 69석이 기민련, 녹색당 소속
- 회기운영은 3-4일간 상임위를 통해 안건을 조율한 후 현안투표로 이어짐
- 헤센주는 인구 600만명 이상의 규모가 큰 주(헤센주를 비롯하여, 바이에른주, 바덴뷔텐베르크 주가 3대 부유주)이면서, 금융중심도시가 형성되어 재정이 안정적이며 부유한 편.  
따라서 구 동독 지역 등 상대적으로 가난한 주에 재정 배분이 된다는 점에 일부는 자부심, 일부는 부담을 느끼고 있음.
- 헤센주의 상임위는 10개로 구성, 헤센주 예산은 3500억 유로(약 451조)

## □ 주요 회의 내용

### ○ Lortz 부의장 (헤센주의회 소개 및 인사말씀)

-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헤센주의회는 총원은 137명으로, 기민련과 녹색당이 연립정부를 구성하여 69석의 과반의석을 확보하고 있음.
- 부의장인 저는 37년 동안 주의 대표로서 의원활동을 하고 있으며, 원 구성은 54개 지역구에서 선출된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
- 의정일수는 평균적으로 1달에 15일 정도임.



[인사말씀 및 환담]



[질의답변]

**Q** 연정을 통하여, 과반의석보다 1석 많은 의석을 가지고 있어서, 의결 과정에서 어려움은 없는지? 의원들은 당론에 기속되는지?

☞ 본질적으로 의원 개개인은 고유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음.

지역구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우선이므로, 당론에 반드시 기속되는 건 아니나, 당론과 배치되는 의결권 행사가 반복될 경우, 당내에서 불이익은 있을 수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하는 이유는 정부 및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권리를 갖기 때문이며, 정책 추진에 유리한 점이 있음.

**Q** 현 헤센주의회의 국제교류 현황은?

☞ 주로 프랑스, 이탈리아, 폴란드 등 인접국가와 교류. 1년에 1~2회 상호 방문을 통한, 공동추진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성격.

☞ 아시아지역에서는 베트남과 교류 진행 중, 특히 베트남 내 독일어학교를 헤센주와의 상호 교류를 통해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음.

**Q** 강원도와의 교류의향은?

- ☞ 회기가 열리면, 대한민국 강원도의회와의 교류의사를 의장님께 전달 드리고 보고하겠음.
- ☞ 필요시 의장님 및 의원들을 대상으로 상호교류 추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교류 논의 진전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겠음.

**Q** 주 의회의 의정 일수와 운영은 어떻게 되는가?

- ☞ 매달 15일간 운영, 필요시 추가하기도 함. 주말에도 안건 논의가 있어 가족들과 보낼 시간이 부족, 가족들이 주도인 비스바덴으로 오기도 함.

**Q** 지방의회 의원이 겸직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겸직과 전업의 비율은 어떻게 되는가?

- ☞ 80%가 전업 정치인, 20% 정도가 변호사 등의 겸직을 하고 있음.

**Q** 보좌관 있는가? 있다면 규모와 운영 방식은 어떠한가?

- ☞ 보좌관제도가 운영 중으로, 그 수에는 제한이 없음.
- ☞ 정책에 필요한 인원을 10만유로(약 1억 3000만원)범위 내에서 활용 할 수 있으며, 정책보좌관의 급여는 세전 6500만원 가량 됨.
- ☞ 통상 지역구에 1명, 주의회에 1명 등 최소 2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음.

## □ 주요 시사점 및 느낀점(도정 도입 및 정책반영 과제 등)

### ○ 의회운영

- 우리나라와 정치제도와 운영에서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는 어려우나, 헤센주의 경험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보좌관 제도의 운영**임.  
독일은 연방정부, 주정부, 시정부의 3층 구조로, 각 단위의 역할 배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음. 특히 주의회의 경우, 매월 15일 가량이 회기 일정으로, 한국과 비슷한 규모인데 의원들은 과도한 업무로 전문성이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책보좌관의 도움을 받고 있음. 혼자서 지역의 안전 해결과 예산심의, 행정감사 등의 업무를 해결하는 데는

여러 한계가 있음. 현재 논의되고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지방의회에도 정책보좌인력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정책보좌관의 수와 인건비를 정액으로 하지 않고, 의원의 필요 수준에 따라 다양하게 운영하는 것도 눈여겨볼만함. 다만, 직업적 정책보좌관을 채용한다면 정액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의회 주변의 열린 공간화 활용

- 헤센주 의회청사, 프랑크푸르트 시청 등 관공서 앞이 시민들의 열린공간으로 활용되고 있었음. 방문 일에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라 관공서 앞에 마켓 매대가 다양하게 설치돼 있었고, 유휴공간을 활용한 매대는 지역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지 역할도 하고 있었다. 시민에게는 관공서 및 공공기관을 더욱 가깝게 느낄 수 있는 친근감을 제공하고 있었다.
  
- 우리도 사회적 합의 형성을 통하여, 관공서나 공공기관 앞터, 강원감영 같은 문화재 터에 이런 아이템을 도입하면 일자리 창출, 지역경기 부양, 문화재 이용률 증가 등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지역주민·주변상인 등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방문 사진



[로츠 부의장 영접]



[헤센주 의회 입구]



[질의답변]



[의회 본회의장]



[기념품 전달]



[기념품 전달]

## ②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of the state of Hesse (헤센주 정치교육원)

- 
- ◇ 방문일시 : 2019. 12. 17.(화) 14:30
  - ◇ 면 담 자 : Mr. Achim Gussgen-Ackva
  - ◇ 주 소 :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of the state of Hesse Taunusstrabe 4-6 65183, Wiesbaden
- 

### □ 방문 목적

헤센주 정치교육기관 Center for political education of the state of Hesse (주 정치교육원)을 방문하여 강원도의 미래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한, 독일의 정치교육체계를 학습하고 우수 사례들을 벤치마킹 하고자 함.

### □ 관련 개요

#### ○ 독일의 정치교육

독일의 정치교육은 국민이 민주주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민주의식과 필요한 지식, 능력을 전달해 주는 것으로서, 계몽 사상에 그 바탕을 두고 있다. 이러한 진정한 의미에서의 독일의 정치교육은 바이마르 공화국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고, 전후 독일의 정치교육도 민주시민교육의 맥락에서 이루어졌다.

#### ○ 주(州) 정치교육원(Landeszentrale)

독일연방 내에는 총 15개의 주(州)정치교육원이 설치되어 활동하고 있으며, 헤센주 주정치교육원은 헤센주 주의 기관이며 교육과학연구 장관의 산하 기관으로써 주내 정치교육을 총괄한다. 주요사업으로 정치교육에 관한 자문활동, 행사진행, 소형행사와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금 지원, 기타 협력조직과의 협력활동, 관심이 있는 헤센 주 주민들에게 출판물 제공 등을 수행하고 있다.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의 민주주의 정착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통일 후 사회통합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공공영역, 민간영역, 정치영역에서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공공영역의 교육기관으로는 연방정치교육원, 주(州) 정치교육원, 각급 학교, 시민대학 등을 꼽을 수 있으며, 민간영역의 교육으로는 교회, 노동단체를 포함한 사회 및 시민단체의 교육을 들 수 있다. 정치영역의 교육으로서는 정당 및 정치 재단의 교육이 있다.

□ 질의 답변

**Q** 앞선 독일의 통일과 비교하여 보면, 한국의 통일은 어떻게 이뤄질 것으로 보는가?

- ☞ 남북은 삶, 생활양식, 사회에 대한 인식 등에서 차이가 너무 큼.
- ☞ 특히 양측 시민간 교류 없는 상황에서 전체주의 사회인 북한에서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 체계에 대한 경험이 없어 정서적 차이가 더욱 큼.
- ☞ 반면, 독일은 통일 이전에 교류가 다양하게 이뤄져 왔음. 따라서 즉각적인 통일 시도나 논의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Q** 통일 이후, 동독지역에 대한 민주시민교육은 어떻게 이뤄져왔으며 무엇이 중요하였나?

- ☞ 89년 통일 이후, 민주주의와 자유주의 교육을 구동독지역의 학교와 시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왔음. 단계별로 체계 변화를 위한 노력을 시도했으나, 여전히 충분히 융합되었다고 할 수 없음.
- ☞ 양측 체계 통합에서 중요한 것은 ① 인내 ② 천문학적인 자본 ③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교육해 낼 수 있는 우리 자신의 준비임.
- ☞ 과도기적 체계로서 1국가 2체제를 논의하기도 하지만, 홍콩의 사례에서 보듯 이는 잠정적일 뿐, 바람직하지 않음.

**Q** 독일이 미흡한 민주주의 토대에서, 정전 후 불과 10년 이내에 대연정이 가능했던 배경은?

- ☞ 서독은 당시, 정당의 성향과 관계없이 공통의 목적, 즉 '동독과의 대립 상황'이라는 현실적인 목적이 있었기에 연정이 가능했음.

Q 민주시민교육의 체계(지방정부와의 관계)와 교육 대상, 주요 내용은?

- ☞ 예산을 비롯한 운영의 모든 과정에서 행정과 독립이 필요함.
- ☞ 정권을 잡은 측의 정치적 입장이나 영향력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함.
- ☞ 교육원은 민주시민교육의 플랫폼 역할을 하며, 집행부와 교육원의 역할과 권한 배분은 명확함.
- ☞ 민주시민교육의 대상은 다양하며, 학교에서 방문 교육을 하기도 함.
- ☞ 교육은 주로 신청을 통해 이뤄지며, 세미나형 강의가 대부분임. 교사에 대한 교육은 특히 선거를 앞두고 선거제도와 정당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이뤄짐.

Q 초중고에서 이루어지는 민주시민교육 이수 후 평가는 어떻게 하는가? 기존의 인성교육이 있다면, 인성교육과 민주시민교육의 차별성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의 범위가 넓은데, 어느 범위까지 가르치는가?

- ☞ 고유의 평가가 따로 있지는 않고 생활 속 실천을 중요시 한다. 개별적 인성교육은 없으며, 민주시민교육은 광범위하게 진행된다.

## □ 주요 시사점 및 느낀점(도정 도입 및 정책반영 과제 등)

### ○ 도정 도입 시사점 ⇨ 정치교육을 준비하는 교사의 자질형성

- 독일의 민주주의 역사는 짧다. 이런 현실 속에서 독일의 민주시민교육 정착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해 함양된 그들의 정치의식은 '연정'이란 열매로 이어졌다. 다양성을 존중하는 보이스텔바흐 기본원칙은 학교교육에서 정치교육을 가능케 하는 바탕이 되었으며, 교사의 정치교육을 가능하게 하였다.
- 강원도교육청도 민주시민교육을 하고 있지만, 이제 시작단계이다. 교육을 담당하는 교사 대부분도 민주시민교육을 받고 자라난 세대가 아니다. 이 때문에 교사들은 몇 주간의 교육을 받고 학생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을 하게 된다. 이는 시행착오와 민원 발생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 편향적이지 않고 중립적인 그리고 통합적인 교사들의 시각과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시사점

- 독일의 민주시민교육은 전반적으로 성공리에 시행되었으나 최근 들어 여러 가지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인구구조의 변화 및 이민, 난민 문제 등으로 인해 독일사회는 인종적, 종교적, 사회적으로 양극화 경향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또한, 최근 세계 곳곳에서 관찰되고 있는 극우주의 및 정치적 극단주의는 독일사회도 당면하고 있는 과제로서 독일 민주시민교육의 과제이기도 하다. 이러한 경향과 함께 유럽 공동체에 대한 회의적이고 비판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점도 독일 사회가 해결해 나가야 하는 문제점 중의 하나이다.
- 이러한 다양한 도전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 후 독일사회의 민주주의 정착과 독일 통일 후 사회통합에 주(州)정치교육원은 큰 역할을 하였다. 독일의 사회통합과정에서 구동독지역이었던 신(新) 연방주(州)에 행정체계와 주(州)정치교육원 등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기반시설이 비교적 단기간에 구축되었던 것이 효율적인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구동독 지역의 민주시민교육과 사회통합 과정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의 대대적인 재정지원, 방대한 자료지원 등이 큰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였다.
- 독일의 높은 시민의식과 탄탄한 기반의 민주시민 사회는 독일 사회통합의 바탕이 되었다. 이러한 기반조성에 주(州)정치교육원이 크게 기여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강원도도 독일처럼 더 체계화되고 장기적인 안목의 지속가능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이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의 법제화와 민주시민교육 전담기구의 설립이 요청된다.

○ 도정 도입 과제 제안

- 독일은 전체주의 기반 하에 1,2차 세계대전의 침략국으로서, 전후 민주주의의 경험이 미흡하였음. 이에 따라 시민들에게 민주주의 제도를 학습하기 위해 1965년 정치교육원이 만들어지고, 1970년에는 독일 헌법에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내용을 포함시키기도 함. 민주주의는 전후 연합군의 산물이기도 함.

- 헌법의 기본정신에는, 모든 세대가 새로 시작해야하며,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제도 이해와 발달을 위해 모든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교육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음.  
이러한 정신에 기반 하여 독일은 모든 시민이 민주주의에 대해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알도록 하는 게 중요하였음. 실제적 지원을 위해 시군단위까지 민주주의가 적용되고 누리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 됨. 다양한 도서들이 발간되고 헌법, 여성, 어린이, 외교 전반에 민주주의 실천에 대한 광범위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특히“투표”가 강조되었음
- <보이텔스바흐 협약>에 근거하여 민주시민교육은 1)정치적인 견해에 대해 강압적 교화 또는 주입식 교육을 금지하고 있으며 2)학문과 정치에서 논쟁이 드러나는 것처럼, 수업에서도 실제와 같은 논쟁적인 상황이 드러나도록 해야 하고 3) 학생들이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를 함께 고려할 수 있어야 한다는 원칙을 지켜왔음. 특히 세 번째의 정치적 상황과 자신의 이해관계의 고려란,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판단 하는데, 자신의 경험과 이익을 고려하여 특정 정치적 입장을 수용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한다는 의미임.
- 이를테면, 교실에서 <남북관계>라는 사회적 갈등 현안을 다루되 교사의 개인적인 의견을 유도하거나 강제하지 않으며, 의견을 달리하는 이들간의 논의가 펼쳐지도록 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생각과 입장을 정리하면서 남북관계에서의 자신의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함.
- 강원도의 경우, 아직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회적 합의나 지원 체계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중앙정부는 이번 선거법 개정을 기회로, 고등학생에 대한 정치교육(선거제도 중심으로 한)을 실시할 계획을 하고 있으며, <징검다리교육공동체> 등 민간단체를 통해 대중 교육을 모색하고 있음.
- 강원도에는 다수의 시민사회단체가 있으며 최근 강원민주재단의 설립으로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의 토대가 어느 정도는 갖추어져있음. 우리 스스로 민주시민에 대한 의식과 경험을 고양하고 확산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통일을 대비하여, 남과 북의 엄격한 정치, 문화적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단계별 통합을 위해서는 남한 사회 자체의 민주시민으로서의 경험이 축적되어야 함.
- 헤센주 정치교육원의 원장은 남북 양측 체계의 통합에서 인내와 자본 그리고 민주주의를 공유할 수 있는 우리 자신의 경험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음. 즉,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의 정신과 과정, 절차를 충분히 체득해야 이질적인 북의 체계에서 살아온 이들에게 민주주의 방식을 수용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음.
- 따라서 강원도에 대하여 ① 민주시민교육을 제도화하는 <강원도민주시민교육 지원 조례>의 제정과 ② 조례에 기반 하여 강원도민주시민교육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가의 양성 및 교육 운영, 자료 발간 등을 담당할 운영 주체의 설립 ③ 강원도교육청과 공조하여 각급 학교 교과과정과 방과 후 활동에서 민주시민으로서의 역량을 높여줄 지원 방안의 모색 등을 제안함.

□ 방문 사진



[정치교육원 입구]



[인사]



[정치교육원 현황 설명]



[질의 답변]



[질의 답변]



[질의 답변]



[기념품 전달]



[기념품 전달]

### ③ Mother Center

- ◇ 방문일시 : 2019. 12. 18.(수) 15:00
- ◇ 면 담 자 : Frau Piepenstock
- ◇ 주 소 : Hopitalstrasse 6 44149 Dortmund

#### □ 방문 목적

- 마을 공동체 공동육아 조성사업 벤치마킹을 통한 시민참여 및 지방 정부의 지원 중요성 논의
- 육아·여성·사회공동체 네트워크 관련 주요정책 및 프로그램 논의

#### □ 관련 개요

##### < 도르트문트 마더센터 개요 >

- 1개의 본원과 1개의 분원, 2개 소재
- 1980년 풀뿌리 여성운동으로 시작. 현재 유럽 아프리카 북미 15개국에 700 여개 확산, 풀뿌리 운동의 모범사례가 되고 있음.
- 1986년 설립 당시 20명이 작은 집에서 시작하여, 2000년 도르트문트시에서 현재의 건물 제공 (현재 180여 회원)
- 조직  
구성은 5명의 공동대표와 4명의 팀장, 13명이 정식 고용직임. 재정은 시보조 (연 5만 유로, 약 6,500만원), 회원회비(월 7유로, 약 9,100원), 각종 프로젝트사업, 수익사업(카페, 공간대여 등), 기부금으로 운영됨.
- 건물구성  
지하 : 파티룸 / 1층 : 카페, 놀이방 / 2층 사무실, 세미나실, 조산원, 유아방 등
- 주요활동  
일일엄마 파견, 재취업센터, 조산원(산파파견), 뮤직스쿨, 놀이방, 보육, 카페, 다세대하우스 프로젝트, 기타상담 등이 있음.
- 센터 내에 사회적 일자리 : 실업자 센터에서 돌봄 노동 제공하고 급여 받는 단기 일자리, 카페운영 참여자 등 3명 정도
- 시간제 보육 등 부모가 없는 상황에서 아동만 케어하는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음. (아동 보호의 책임성 문제 때문)

## □ 질의 답변

### ○ Frau Piepenstock 인사말씀 및 기관소개

- 시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3번째 이전하였음.
- 현재 건물은 시로부터 무상임대(시 공유재산)로 사용하고 있으며, 사단 법인의 형태의 연합체로 운영하고 있음.
- 1년에 약 6만원을 납부함으로써, 조합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고. 은행 등 금융기관의 후원과 찬조 형태의 지원을 통하여 운영하고 있음.
- 자녀의 어머니뿐만 아니라 할머니, 할아버지, 아버지 등 가족 누구든 올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서, 여러 세대를 아우르는 통합과 소통의 공간을 마련하고 있음. ⇨ 한국의 탁아소 개념과는 다소 차이가 있음.

**Q** 주 이용자는 부모와 어린 자녀일 것이지만, 노년 세대도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떤 방식으로 참여하나?

- ☞ 노인들의 경우, 외국 이민자들을 위한 언어과정이나 음악, 종이접기 등 비교적 지역의 인텔리전트들이 참여함.
- ☞ 아이 키우는 방법이나 살림 등의 지식, 정보 등은 자연스럽게 교류하는 과정에서 공유됨

**Q** 프로그램을 위한 대기자가 있는가? 부성과 관련하여 아버지 교육 혹은 아버지 육아에 관해 지원하는 것은?

- ☞ 담당자 답변 : 대기자는 없고, 회원이 160명임.
- ☞ 부성과 관련해서는 홈페이지나 페이스북 등을 통해 양육 참여의 필요성과 의미, 방법 등을 알리는 홍보를 주로 하고 있음.
- ☞ 아버지 이용자들은 대체로 입소문을 듣고 오게 됨. 아버지 모임이 유지되고 있음.

**Q** 마더센터에서 제공하는 일자리는 어떤 것들인가? 마더센터 시설 이용 대기 아동들이 많은가? 마더센터 시설 이용의 효과는 무엇인가? 이용자의 만족도는 어떠한가?

- ☞ 마더센터에서 운영하는 식당과 카페에서의 일자리와 아동케어 일자리가 있다. 시설 이용 희망자는 언제든지 바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따로

대기자가 있지는 않다.

- ☞ 마더센터 이용을 통해 엄마들의 자유로운 시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로운 친구도 사귀고 출산 및 육아 정보도 교류하는 등 만족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 **이용자 인터뷰** : Ehrhardt 가족. 아빠 40세, 엄마 32세

Q 마더센터 이용 내용, 빈도, 장점, 의미는?

- ☞ 일주일에 2~3번 정도, 학교가 옆에 있어서 아이를 데려다주고 오거나 데리러 올 때 이용.
- ☞ 음식 값이 싸고(시중의 1/3수준) 맛이 좋아서(건강한 음식) 엄마들과 점심식사를 종종 이곳에서 함.
- ☞ 부모와 아이들이 모여서 숙제를 같이 하고, 넓은 공간(뒤뜰이 있는 주택이라는 점에 만족도가 큼. 인근 지역은 약간 가난한 동네로 주로 아파트 거주가 많음)에 쾌적하고 안전하여 자주 이용하게 됨.
- ☞ 이곳에 있으면 부모도 아이도 TV 안보고 공작놀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담소와 정보(양육문제나, 기타 학교 어려움 등)도 나눔. 이곳을 통해서 다른 이웃 엄마들과도 친구가 되고 아빠들도 같이 어울리게 됨.
- ☞ 마더센터가 없었다면, 불편하고 슬플 것임. 애들은 무엇을 하며 놀지 막막할 것임. 개인으로서 관계를 채워줄 친구도, 학습 지원도 어려울 것임.

□ **도정 도입 반영 과제**

- 마더센터의 일자리는 항구적 일자리라기보다는 단기간의 노동력을 제공하는 성격의 일자리이다. 3개월 후면 다른 사람에게 로테이션도 해야 한다. 일자리는 장기적이어야 하며, 그래야 각자의 미래 설계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었지만, 시 보조금을 통해 운영되고 있었고 수익사업 규모가 작은 편이라 꾸준한 인건비 지급을 통한 노동력 제공에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우리도 읍면동에 1개씩 아이를 케어하고 엄마들이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 현재 돌봄센터, 어린이집 등을 운영하고 있으나, 세대간 소통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위한 대안으로, **읍면동 경로당을 재구조화**해 마더센터 기능도 부여한다면 다세대(多世帶)간 소통공간인 공동의 거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 할머니, 할아버지로부터 삶의 지혜와 민간요법도 배우는 등 3세대간 교류의 장을 만들면 공동체커뮤니티사회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 □ 도정 도입 시사점

- 최근 우리나라에도 육아정보를 나누거나, 육아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관련 기관들이 생기고 있다. 대표적으로 여성가족부 산하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육아나눔터>와 보건복지부산하의 <도·시군육아종합정보센터>가 있다.
- 전자는 부모들이 실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주를 이루지만, 주로 주간에 부모들이 이용하도록 되어 있어, 맞벌이 부부의 이용에 한계가 있음. 최근에 야간 및 주간 보육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설치와 운영의 질적 차이가 큼.
- 서울시육아정보센터의 경우, 보육반장 등의 제도를 통해 세대 간 보육 지혜를 나누는 등 공동체 케어의 경험이 확산되고 있으나 이런 체계가 반영되지 않은 곳이 많음.
- 독일의 마더센터는 단순히 보육 정보 공유나 케어 제공만이 아니라 “공동의 거실”로서, 식사와 생활의 일부를 함께 하는 공동체 경험의 장이 됨. 정부는 이를 독려하며 돕는 기능을 우선으로 함.  
 춘천과 서울 몇몇에 운영되는 마더센터는 카페 공간을 우선 조성하여, 부모와 자녀, 혹은 부모 간 담소와 간단한 음식 나눔을 가능하도록 하였음. 식당이 아니라 ‘공동의 식탁’을 제공한다는 것은 공동체 의식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 강원도와 각 시군에서도 아이 돌봄을 단순히 개별 아동의 양육을 넘어, 공동체의 자원으로, 또한 공동체의 자원을 활용하여 공동 보육과 성장을 돕는 시스템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역량과 경험 있는 지역 중노년층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현 세대 양육자들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하는것도 중요한 자원 활용의 방안임.
- 아파트 생활이 일상화된 도심에서 지자체가 개별 주택을 매입, 리모델링 하여, 마당이 있는 쉼터 등을 마련하는 것도 고려 해 볼만함.  
 운영주체는 시민들과 활동역량을 갖춘 단체들이 지원하고 지역 거점을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모색이 필요함. 회원제로 운영하여 이용자 부담을 통해 책임성과 재원 부족의 어려움을 채울 수 있음.

□ 방문 사진 (센터 내 이용시설은 사생활 보호 방침으로 촬영하지 않음.)



[ Mother Center 전경 ]



[기관 소개]



[Mother Center 스태프 현황]



[ 센터내 자체운영중인 카페 ]



[질의답변]



[센터 이용주민 인터뷰]



[Mother Center 방문을 마치고]



[기념품 전달]

#### ④ 오버하우젠 시청

---

◇ 방문일시 : 2019. 12. 19.(목) 10:00

◇ 면 담 자 : Frau Kallinuikidou

◇ 주 소 : Schwartzstrasse 72, 46045 Oberhausen

---

#### □ 방문 목적

(구)루르공업지대 내 산업중심지인, 오버하우젠시에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 사업관련 주요시책과 도시재생 방법론에 대해 연구 및 벤치마킹하여, 강원도 내 구도심 및 폐광지역 내 정책 반영가능성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 □ 기관 개요

##### ○ 오버하우젠 시 개요

- 위치 : 독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
- 면적(km<sup>2</sup>) : 77.04
- 행정구분 : 3구(stadtbezirke) 23동(Stadtteile)
- 인구(명) : 218,181

##### ○ 오버하우젠 시 특성

- 루르공업지대 안에 위치하며 산업 중심지이다. 라인-헤르네운하로 통하는 항구가 있으며, 하노버와 베를린을 왕래하는 간선철도가 있는 교통의 요지이다. 네덜란드와 연결되는 고속도로도 정비되어 있다.
- 1874년 시로서의 특권이 인정되었으며, 1929년에는 인접한 오래된 마을인 슈테르크라데(Sterkrade)와 오스터펠트(Osterfeld)를 흡수하였다.
- 베스트팔렌에 방사상으로 펼쳐진 탄광과 철광의 중심에 위치하여 급속하게 산업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었으며, 철강과 역청탄의 생산에 힘입어 중공업이 발달하였다.
- 루르 지방에서 최초로 제철소가 건립되었고 아연제련소, 염색 공장, 철도 작업장, 그리고 대규모 수력발전소가 있다. 증기 보일러, 와이어로프, 유리, 화학제품, 설탕, 도자기, 시가 등의 제조업도 활발하다.

## □ 질의 답변

- Q** 석탄산업합리화 이후 정부가 실직된 광부들의 취업지원을 해 주었는가? 실직이후 광부들의 거주 이전비율과 폐광지역 도시재생상황은?
- ☞ 경제성장이후 1962년부터 1987년까지 탄광 및 제철의 수요 감소에 따른 폐광시작. 정부차원의 실직 광부 취업지원은 없었으며 탄광회사마다 지원책이 달랐음.
  - ☞ 예를 들어 회사가 망해서 문을 닫는 경우 광부들은 실업급여를 받았고, 회사가 경영유지를 하면 사회보장보험 통해 지원을 받았다. 즉 각 탄광마다 지원계획과 지원금이 달랐다. 특수직은 취업이 되었고, 일반 채탄직은 실업상태를 유지했다.
  - ☞ 독일인들은 자신이 태어나 일하던 거주지에 정착하는 성향이 높아 대부분의 실직 광부들은 거주 이전을 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그럼에도 젊은이들이 일자리를 찾아 떠나 폐광지역은 인구감소현상이 일어났지만 최근 난민 덕분에 인구가 증가추세로 바뀌고 있다.
  - ☞ 1987년부터 2006년까지는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구조, 산업구조의 변화가 일어났다. 대표적 재생사업은 탄광시설을 이용한 쇼핑몰 ‘첸트로’와 가스저장소를 이용한 전시공간 ‘가조메터’이다.
  - ☞ 보존하면서 활용하는 것에 큰 주안점을 두고 각종 탄광시설들을 산업 박물관, 미술관, 전시관, 공연장으로 탈바꿈했다.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질의 답변]

- Q** 대형mall이 오버하우젠 경기를 살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소상공인들의 피해와 어려움에 대한 보완책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 ☞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zentro 상가가 들어온 후로 어려워졌고, 시의 보조금을 일부 받기도 하였음.
  - ☞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을 늘리기도 하였으나 큰 성과는 못보고 있음.
  - ☞ 현재 zentro mall의 방문객은 주변지역(벨기에, 네델란드 등)에서 오는 이용객들로 연간 2,200만명 정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됨. 현재로서는 zentro의 수익이 높아지면서, 동시에 시의 세수도 높아지고, 일자리도 많아지는 것으로 보고 있음.

## □ 도정도입 시사점

- 오버하우젠시는 1847년~1873년 철광 및 탄광산업을 기반으로 도시화가 시작되어 1901년~1934년, 도시화와 집중화가 동시에 이뤄졌으나 중소기업 들은 경쟁력을 잃어 폐쇄되고, 대기업이 확장 흡수하는 현상을 보였음. 이때, 인구와 기업들이 외곽으로 빠져나가 시내는 공동화되었으나 1차 세계대전을 겪으며 석탄과 철광의 1개 기업이 30,000명을 고용하는 등 공룡기업이 탄생하기도 하였다.
- 전후 1945년부터 1962년은 도시재건사업이 활발하여 아파트 등 고층 건물과 사무공간 및 교육수요가 확대되었으며, 오버하우젠 한 시에서 서독 경제의 8.6%를 담당할 만큼 영광의 시기였음. 그러나 1962년부터 1987년 탄광 및 제철사업의 위기를 맞아 1차 도시 재생사업에 들어갔음. 그러나 62년부터 석탄과 제철이 붕괴되었고 1987년부터 2006년 구조적 변화를 포함한 2차 재생 사업이 이뤄졌음. 이 시기에 도시 재생의 방안으로 공업지역이 외부와 연계된 쇼핑몰로 바뀌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얻게 됨.
- 루르공업지대는 철광과 석탄 사업의 사양화에 따라 해당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논의하여왔음. 과거 철광공장(St AntonyHutte)은 고고학 박물관으로 변신하였으며, 교통과 부대시설이 풍부한 신시가지는 쇼핑몰이 들어서서 주민들은 새로운 도시 활력이 되고 있다고 보고 있음.

- 쇼핑몰이 들어서기 까지도 주민들과 시정부와의 지속적인 상호 논의가 있었고, 미흡하지만 해당 지역의 소상공인을 위한 대안들을 같이 모색해왔다고 함. 철광도시 오버하우젠의 가장 성공적인 도시재생 실적이 대형쇼핑몰이라는 인식에 대해서는 조금 의아스럽지만, 기존의 인프라를 지키면서도 새로운 소비 패턴을 받아들인 점이 고무적임.  
그러나 오버하우젠의 경험을 그대로 적용하긴 어려움.  
태백, 정선, 영월 등 탄광지역이 오버하우젠과 가장 큰 차이점은 교통연계의 용이성임.
- 태백과 정선 등 강원도의 탄광은 교통 접근성으로는 오지에 해당하며, 기존의 산업 기반이 보존 가치 면에서도 논의가 분분함. 카지노처럼 사행성 사업을 들여왔으나 인구와 일자리 늘리기의 궁극적인 목적은 달성 하지 못하였음.
- 오버하우젠시의 사례를 통해 배울 것은 대안 논의가 시민들을 배재하지 않고 이뤄져왔다는 것이며, 충분한 검토와 시간을 두고 진행되었다는 점임.

## □ 느낀점

- 폐광이후, 독일 광부의 대부분은 일자리를 잃은 채 오버하우젠에 그대로 머물고 있었다. 독일 폐광지역 주민들의 관심사는 새로운 개발보다는 산업문화유산의 보전이었다. 탄광 역사를 잊지 않고 기록하고자 한 그들의 의식에 감명을 받았다.
-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탄광시설을 이용한 대형쇼핑몰 ‘첸트로’를 조성하였다. 실직광부의 일자리 대체산업으로 창출하고자 하였으나, 결과를 그러하지 못하였다. 첸트로 때문에 기존의 소상공인들은 오히려 피해를 입고 폐업하거나 망했다. 때론 경영합리화로 정리하는 시설물도 있었다.
-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보다는 첸트로 내 5천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간접 고용 8,000명을 창출하는 등 내부경쟁력보다 세계경쟁력에 더 관심을 두었다.

첸트로 쇼핑몰 주변에도 다양한 재생 건물들(전시관, 공연장, 미술등)이 생겨나면서, 결국 첸트로가 오버하우젠 발전의 랜드마크가 되었다.

- 현재 오버하우젠은 노령인구가 많은 상황이다. 또한 난민이 유입되면서 난민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오버하우젠은 도시재생의 성공사례이자, 산업문화유산 보전에 따른 지역정체의 문제를 동시에 갖고 있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오버하우젠에서 추진한 첸트로나 가조메터 등의 성공사례와 보완해야 될 부분은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에 시사 하는 바가 크다고 할 것이다.

□ 방문 사진



[ 오버하우젠 시청 전경 ]



[인사말씀]



[회의장면]



[회의장면]



[오버하우젠 시청 입구]



[기념품 전달]

## ⑤ Zollverein(출페하인 광산시설)

- ◇ 방문일시 : 2019. 12. 20.(금) 10:00
- ◇ 면 담 자 : Mr. Ulrich Behrens
- ◇ 주 소 : Fritz Schupp Allee 45141, Essen

### □ 방문 목적

독일 탄광지역의 도시재생사업 현황 및 추진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에센지역에 위치한, 유네스코 세계문화 유산 Zollverein(출페하인)을 노르트웨스트팔렌주 광산자협회와 함께 방문하여 폐광이후 도시재생 이행 과정과 선진정책 접목을 도모하고자 함.

### □ 기관 개요

#### ○ 주요내용

- 유럽문화수도에 선정된 에센-루르 지역은 과거 도시 발전의 기반이 되었던 석탄·철강 산업의 유산들을 활용하여 문화 중심의 도시를 만들고자 노력하였으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출페하인(Zollverein)임.
- 탄광의 각종시설과 건물은 ‘루르 박물관’, ‘레드닷 디자인 박물관’ 등으로 재생 및 개조되었으며, 버려진 산업 유산을 독일 최고의 역사·문화 공간으로 변모.
- 유럽문화수도 선정과 더불어 2001년 대부분의 탄광시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 이는 지난 백 년간 유지되어온 산업유산의 흔적과 그 역사적 자취를 그대로 보존함과 동시에 완벽한 문화공간으로 거듭났음.

#### ○ 사업추진 일정(기간, 단계별 등)

- 1847년 12월 : 출페하인의 광구권 불하 신청승인
- 1960년 : 폐쇄
- 2001년 : 세계유네스코문화유산 (UNESCO)로 지정
- 현재 : 출페하인 탄광을 박물관과 문화시설로 개조

## □ 질의 답변

**Q** 출폐하인 운영의 문제점이 있는가? 매출규모 및 운영비 재원마련 방안과 실직광부대책은?

☞ 현재 출폐하인이 있는 루르지대의 가장 큰 문제는 지하오폐수 처리 문제이다. 이 지대는 심층지하수 때문에 지대가 물러져 30년 후면 20m~30m 침강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지하 오폐수를 끌어 올려 오폐수 처리시설이 있는 엠셔지역으로 오폐수를 보내 정화시킨 후 라인강으로 보내는 작업을 계속 진행하고 있다. 또한 고층건물은 짓지 않거나 기존 고층건물도 공간을 비워두고 있는 상황이다. 출폐하인은 지하수 처리작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해서 루르 탄전지대의 시민 안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하는 것이 중요 과제이다.

☞ 출폐하인의 또 하나의 문제는 문화재적 가치는 있지만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건물이라는 것이다. 문화재 보전처리에 드는 상당한 비용은 여전히 부담으로 남아 있다.

2001년부터 출폐하인 홍보 시작했고 2010년 유럽문화센터를 통한 홍보가 많이 이루어짐으로써 방문객이 증가하였다. 실제 출폐하인과 인접국가인 네덜란드는 90km거리에 있으며, 매일 네덜란드 관광버스 50여대가 출폐하인에 관광하러 오고 있으며 전체 관광객은 연간 200만명 수준

☞ 현재 에센시에서 운영비를 50% 정도 지원해주는 상황이며, 시 지원 없이는 운영하기 어려운 상태이다.

☞ 출폐하인 주변 탄광공장은 디자인센터나 박물관, 미술관, 디자인 스쿨(학생 약 500명), 발레 문화센터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 실직광부에 대한 취업대책이 따로 있지는 않았으며, 한때 실업률이 연방정부 평균의 2배 정도 높았던 시기도 있었음.

## □ 도정도입 시사점

- 오버하우젠의 가스미터가 철광공업단지의 가스탑에서 세계적인 전시공간으로 바뀌면서 세계적인 관광문화 코드가 되었다면, 에센시의 수많은 탄광 산업단지였던 출폐어라인은 그 자체가 유네스코의 세계유산으로 지정되어, 원형 보존의 가치를 드러내고 있음.

- 오버하우젠과 출페어라인 모두, 옛 산업 호황기의 유물이었으나, 사양화 되면서 애물단지로 전락할 신세였음. 그러나 시민들과 시정부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해석과 동력을 불어 넣는데 한뜻을 모았다고 함. 근대화의 과정에서 이전의 것을 허물고 새로 짓는 것에 가치를 둔 개발을 해 온 우리나라와는 대조되는 선택임.
- 단순히 오래 된 것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지역을 쇠락한 혹은 폐쇄된 산업현장의 공간을 다양하게 재해석하고 재배치했다는 점에서 배울만 함. 출페어라인은 그 중심에 이전 채탄 및 이동 과정을 살린 석탄 박물관을 비롯하여 세계적인 디자인 박물관인 레드닷 박물관 등 단순한 문화 공간이 아니라, 세계적인 명소가 될 만큼 분야의 거장들의 참여를 포함시켰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음. 모방하는 것만 으로는 누구의 눈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의미임.
- 물론 산업단지를 다시 재생시켜 충분한 일자리와 실업률의 감소를 이끌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명백히 할 필요가 있음. 탄광지역이 학력과 자산이 없는 이들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나, 현재의 사회 구조는 더 이상 훈련되지 않은 인력을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터전이 없음. 그것은 독일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음. 출페어라인 지역도, 탄광지역이 쇠퇴하면서 처음 10여년은 주민들도 관망하다가, 70년대부터 정부가 개입하여 석탄회사를 통합하여 하나로 하고, 그 산하의 탄광이 문 닫으면 남아있는 인근 산하 탄광으로 일자리만 옮기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오다가 1980년 제철소가 무너지면서 실업률이 심각해지고 이후 시도한 자동차 공장, 휴대폰 공장 등도 비용대비 효율성을 고려한 대기업들이 철수하여 이전과 같은 규모의 일자리는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임.
- 독일이 이런 인력의 재배치를 위해 선택한 것은 해당 지역 내 대학들을 통해 재교육시키는 것이었음. 현재로서 루르 지역은 산업 지역의 영광을 내려놓고 문화유산을 통한 관광 산업을 만드는데 기회를 모색하고 있음.

- 독일은 당시 루르지역의 구조개선 정책으로 <엠셔파크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는데 세 가지 가이드라인이 있었음 1) 환경의 복원 2) 산업유산의 보존 및 재활용 3) 여기에 문화요소의 도입 및 적용임.
- 이 프로젝트에 17개 공업도시가 120개의 프로젝트로 참여했는데 산업화 시설의 재활용에는 국제적인 건축가와 과학자들이 참여하는 국제건축가 페어 1등 팀에게 전체 디자인을 맡기고, 이들 팀은 폐쇄공간, 위험 공간으로서의 공장을 오픈 공간의 컨셉으로 잡아 시민단체들과 함께 디자인과 공간 활용방안을 모색하였음.
- 낙후된 철강 산업 시설을 환경생태 공원으로 탈바꿈하기 위해서, 또한 3가지 중요한 지향점이 있었는데 이는 1) 장기적인 관점으로 진행하는 지역구조개선 정책이어야 하며 2) 민간과 함께 하는 공간개선프로젝트로 탑다운이 아닌 바텀 업 방식으로 하고 3) 반드시 예술가들이 결합한 문화 예술 주도형 도시재생이어야 할 것임. 그 결과 독일은 산업단지 안에 정원을 조성하고, 오래된 탑은 조명예술가들의 전시예술품이 되었으며 최고의 디자인 전시장, 산업 박물관이 되었음.
- 독일의 사례에서 제일 중요한 배울 점은 원칙과 방향임. 모든 장기적이고, 민간 통합이며, 환경과 유산을 보존하고 여기에 무엇보다 예술을 접목시키는 방식. 이런 대원칙이 없이 해당 공간만을 보며 도시 재생을 기획하고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주민들의 참여를 억지로 끌어내고, 전문가의 안목과 전문성에 주민들의 니즈를 접목시키지 않고 전문가성 혹은 주민들의 낮은 감수성에 매달린 일방적인 재생 방침 등으로는 100만명이 찾는 독일의 사례는 꿈같은 뿐임.
- 강원도에서 이뤄지는 모든 도시 재생에도 기본 원칙을 세우는 것은 어떨까. 단기 처방이 아니라 장기적 프로젝트라는 것을 상호 공감하고, 지키고 보존할 것에 대한 선택과 합의를 전문가와 시민사회가 함께 해가며, 건물 한 채·전시 기획이나 공연 등 꼭 봐야할 가치를 담은 예술가들의 기획을 포함 시킨다면, 도시 재생사업이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 느낀점

- 출폐하인과 주변 디자인센터 등의 도시재생사업은 완벽한 성공이라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태어나고 자란 고향을 벗어나지 않는 정주의식과 박물관, 전시관 등 옛것에 대한 애착이 출폐라인 도시재생사업의 원동력이었다. 독일 폐광지역의 공동화를 억제한 것은 광부들이었다. 이들은 일자리를 잃었지만, 그냥 고향을 떠나지 않았을 뿐이다. 난민증가로 인한 인구증가도 한몫했다. 유럽인들은 관광코스에 꼭 박물관을 포함한다. 특히 EU라는 특별한 케이스는 인접 국가 국민의 대거 방문으로 이어지고 있었다. 이는 강원도가 가질 수 없는 장점이다. 출폐하인이 적자 운영에도 유지되는 이유다. 또한, 루르 탄전지대는 공업도시이자, 도로, 철도, 지하철 등 접근성이 갖춰진 지역이다.
- 반면 우리의 경우는 어떠한가. 실직 광부들과 가족은 폐광지역을 떠나 버렸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박물관 관람은 평생 몇 번이나 될까? 오래 된 건 부수고 새로 짓는 것이 우리나라 정서다. 새 집 새 아파트 이사할 때, 기존 가전제품을 새 것으로 바꾸는 가정이 상당하다. 우리는 새 것을 좋아하는 국민성을 가졌다.
- 강원도 폐광지역은 접근성도 가장 낙후된 곳이다. 출폐하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에는 환경과 인식차이에서 괴리가 크다고 생각한다. 일본 탄광지역 개발사례를 벤치마킹한 태백의 석탄박물관, 고생대자연사 박물관, 탄광역사촌 등은 모두 실패했다. 고유의 문화, 가치관, 생활양식 등에서 비롯되는 차이점을 간과하고 시설만 벤치마킹했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폐광지역 벤치마킹은 끝내야 한다.
- ‘탄광’에만 집착한 폐광지역의 비전은 의미 없다고 본다. 강원도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강원남부지역을 어떻게 지속가능한 도시로 탈바꿈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한다.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소멸과 노령화에 대비해 폐광지가 지속가능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구는 어느 정도인지 분석 예측해야 한다. 최소한의 인구에 맞는 산업구조 재편, 정주여건 재생사업 등을 추진해 나가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방문 사진



[ 출폐하인 입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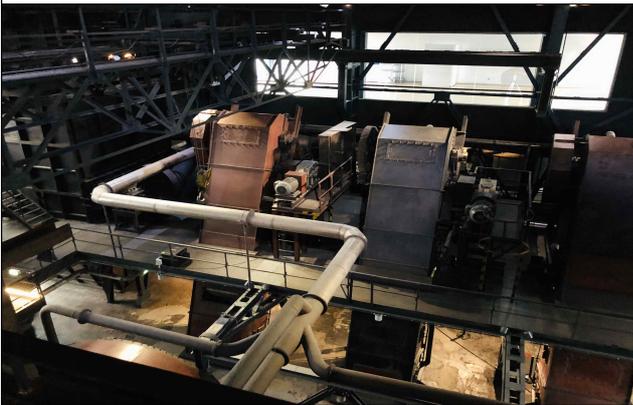
[광산협회 관계자 환경문제 관련 설명]



[광산협회 관계자 환경문제 관련 설명]



[시설 안내도 설명]



[시설물 안내]



[질의 답변]



[본 분관 박태영 공사 루르지역 동향 브리핑]



[기념품 전달]

## ⑥ Wasted Lab

---

◇ 방문일시 : 2019. 12. 21.(토) 14:30

◇ 면 담 자 : Elisha Weeber

◇ 주 소 : Motorwal 300, 1021 PH Amsterdam, Netherland

---

### □ 방문 목적

네델란드 암스테르담의 우수정책인 자원순환사업의 추진 현황과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WASTED LAB을 방문하여 선진 자원재활용 정책을 학습하고, 강원도에 접목할 수 있는 정책대안들에 대한 방법론을 연구하고자 함.

### □ 기관 개요

- 2015년 파일럿 프로젝트로 시작하여,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고, 재활용을 향상을 위하여 데이터를 분석하고, 새로운 시스템 개발을 이슈로 사업 진행 중임.
- 주요내용은 재활용과 보상을 연계하는 시스템 툴 개발과, 플라스틱 낭비에 대한 지역주민 인식개선 교육을 통해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동참하도록 하는 것임.

### □ 주요추진 사업현황

- 자원 재활용 처리, 특히 플라스틱 폐기물관련 자원순환을 주요이슈로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사업추진 3년이 지난 지금은 정부보조는 줄어들고 상황. **보조금 없이 사업을 유지하는 것이 최대 과제**임.
- 재활용 대상 폐기물 발생이 많은 지역, 재활용 분리로 혜택을 받는 지역, 분리수거율이 높은 지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정책집행자와 정책수혜자를 구분하여 사업성과를 높이고 있으며**, 이러한 WASTED PROJECT 는 시민들로부터 상당히 신뢰를 받고 있다.

○ 리워드 시스템

- 크게 두 가지로 분류된다. 첫 번째로 재활용 폐기물에 대해서 보상해주는 시스템이며, 20센트 정도 환급이 된다. 우리나라의 공병 보상제와 유사하다. 두 번째로 코인시스템인데, 여기에 참여하는 가맹점(샵)에 대해서는 5~20%의 할인을 해주고 있다.

○ 온라인 앱 사용

- TOMS, PATAGONIA 등 유명브랜드와 협력하여, 플라스틱 사용 감소를 슬로건으로, 온라인 보상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브랜드 유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WORM HOTEL

- 음식물 분해를 통해 작물을 생산하고, 특히 도시 조성된 꽃 등을 자연 분해를 통해 생성된 거름 등을 활용하여, 도시정화에 독특한 역할을 하고 있다.

○ MOK CAFE

- 단단한 플라스틱을 사용하여, 흙을 모으는 펜스로 활용함과 동시에, 화단, 꽃꽂이 등으로도 활용함으로써, 자원순환을 실천하고 있다.

□ 주요 시사점 및 느낀점(도정 도입 및 정책반영 과제 등)

- 웨이스티드 프로젝트는 소규모 도시인 암스테르담에서,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함. 환경오염, 플라스틱의 오염이라는 전 지구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이를 지역적 차원에서 이야기 하고, 시스템을 돌아보며, 지혜롭게 플라스틱을 모으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그 과정이었음.
- 단순하게는 플라스틱을 함부로 버리지 않고 모아오도록 유도하기 위해 1봉지당 20센트 유로 상당의 칩(초기 플라스틱, 최근 우드칩) 교환하는 것으로 실천함. 가게, 카페, 박물관 등에서 구매와 이용이 가능하며, 현재에는 QR 코드 이용방안을 모색하고 있음.

- 암스테르담의 참여 가구가 증가하면서 분리 물품을 5개로 확대함(종이, 플라스틱, 유리, 천, 대형폐기물 등)을 분리할 수 있는 스타터 키트를 제공하는데 이에 대해 상당히 만족해 함.
- 웨이스티드 프로젝트에 기관으로 참여하는 이유로는 지구 환경 개선, 지역 발전기여, 가게 홍보등 다양하게 나타남. 이 과정에서 참여하는 기관에 대한 평가도 높아지고, 오염 인식 개선에도 도움이 되었으며, 플라스틱 소비에 대한 경각심고 높아져 구매량 자체가 줄고 분리수거 비율은 높아지고 있다고 보고함.
- 이를 촉진시키기 위해, 웨이스티드 프로젝트에서는 보상과 교육, 구체적 성과물이라는 방안으로 문제를 풀었음. 스타트 키트 1개 가방에 플라스틱을 가득 채워 제출하면 1코인을 받고, 이 동전으로 동네 카페에서 차 한잔 혹은 자전거 고칠 때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음.
- 학생들과 주민들에게는 플라스틱 오염의 위험과 재활용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이렇게 모인 플라스틱은 녹여서 블록을 만들어 배포 하는데 이는 가시적인 결과물을 보이기 위한 것임. 양적인 가시성은 소비를 줄이고, 소비가 줄어들면 이를 모아서 얻는 경제적 수익이 같이 줄기도 함. 이 과정에서 스타트업 레지던스도 생겼는데, 폐기물을 재 처리하고 재활용하는 업체 등이 해당.
- 특히 파타고니아 등 기존의 대기업 의류업체 등이 웨이스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Toms 같은 기업은 웨이스티드 프로젝트 참여자들에게 20% 까지 할인해주기도 함. 향후 관련 앱을 개발하여 운용할 계획임.
- “행동이 변화하면,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으로 실천을 선행하여, 이에 대한 체계 내 관계망들이 참여 폭이 커지고 있음. 현재 20여개의 그룹이 함께 협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분야로 확대시키고 있음. 즉, 벌레를 통해 음식물을 분해(worm's hotel)하는 통을 배포하거나 웨이스트 프로젝트에 참여한 대가로 받은 칩 500코인을 전력회사에

제출하면 전기료를 할인해주거나 코인을 모아 이웃에게 기부하거나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으며,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pop-up shop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순환 프로젝트를 진행함.

- 무엇보다 우리 강원도가 웨이스티드 프로젝트에 관심을 가질 이유는, 강원도의 청정 자연 이미지에 부합하기 때문임. 다른 도시보다 타고난 자연환경은 우수하지만, 이를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폐기물 발생량 억제 및 자원순환을 통해 우리 스스로 청정환경의 일부가 되어야 함.
- 강원도가 본 프로젝트를 통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함.
  - 1) 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단체, 생협조직 등 시민단체와 주민자치회나 이통장 같은 조직을 통해 특히 플라스틱 줄이기 등의 캠페인과 더불어 업장에서 플라스틱을 줄이도록 독려하는데 참여시키고,
  - 2) 참여한 업체에게는 강원도 친환경기업 인증 등 명예와 이미지를 높일 수 있는 제도를 통해 보상을 주며,
  - 3) 참여한 이웃들에게는 현재 개발 계획 중인 지역상품권 모바일 동전으로 수집량 만큼 보상하며, 참여 업체를 이용하도록 연결시킴.
  - 4) 이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환경 교육과 참여의 이점이 적극적으로 경험될 수 있도록 전담 기관 등을 통해 운영 지원할 수 있음.
  - 5) 다만, 수거된 플라스틱을 어떻게 순환 처리할 것인지 과학적이며 기술적인 방안들이 모색되고 이 성과를 참여자들이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강원상품권의 다양한 사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로 현재 강원도 자원봉사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나눔가게>를 지자체마다 연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들 시스템을 함께 활용할 수 있음. 여기에 환경 등을 고려하는 대기업 체인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면 주민들이 참여 폭이 활성화 될 것으로 판단됨.

□ 방문 사진



[재활용을 통해 창작된 기관시설물 소개]



[사전간담 및 기관현황 설명]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질의 답변]



[담당자 프리젠테이션]



[질의 답변]



[Wasted Lab 기념촬영]



[기념품 전달]

- 유럽에 머무는 7일 동안, 일요일을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 공식기관을 방문했다. 이번 연수의 주된 목적의 하나는, 독일과 네델란드의 정교한 제도와 체계 안에 주민들의 참여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반대로 시민들이 주도적인 과업에 지자체가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가를 배우는 것이었다.
- 마더센터와 웨이스티드 프로젝트는 시민들이 먼저 시작해서, 확산되는 과정에 지자체가 지원한 사례였다. 이들의 특징은 당사자들(양육하는 부모, 환경 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가진 시민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이기 시작했고, 노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그 가치와 필요성을 지자체와 의회가 인정하여 지원하였다. 강원도의 경우도 시민사회나 당사자가 하고 있는 사회적인 과업을 발굴해내고 이를 확대하기 위한 관심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
- 두 번째, 산업 지역의 재생과정을 보기 위한 에센의 출폐하인과 오버하우젠의 방문도 인상적이었다. 쇠락한 산업 구조와 그 단지들을 재건하기 위한 원칙(산업화로 인해 훼손된 환경복원, 기존 유산의 보존과 재활용, 문화적 요소 도입)과 방향(시민참여, 장기간에 걸친 속의 과정, 문화예술의 필수적인 활용)은 아름다웠다. 그런 대원칙이 있었기에, 과거 영광의 시절 만큼은 안되지만, 폐기된 도시로서의 오명은 충분히 벗어내고 있었다. 실제로 국내방문자 만큼이나 벤치마킹을 위해 방문하는 외국인들의 수도 적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진정 벤치마킹해야 할 것은 겉모양이 아니라, 정책이나 성과의 맥락(독일은 독일의 맥락이, 한국은 한국의 맥락이 다를 것임)과 정신, 지향점이어야 한다. 우리에게 그런 원칙과 지향이 있었는지 반성하게 된다.
- 세 번째, 헤센주의회와 정치교육원으로 통해 배운 것은 다양성과 자율성이다. 헤센주의회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번에 시도하려고 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통해 소수 정당이 의석을 확보하도록 하고 있고, 또한 주정부 차원의 연정을 통해 권력의 일방적 남용을 견제하고 있다. 헤센주 정치교육원에서 가장 의미 있는 배움은, 다문화 사회 그리고 남북교류 과정에서 필요한 양 체제와 문화에 대한 이해를 돕고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으로서의 자질 함양의 중요성이다. 우리는 아직 어느 세대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을 제대로 받아 본 일 없었다. 그럼에도 광화문과 촛불이라는 민주열망의 평화적인 표출을 해왔으니, 이의 전승과 확산을 위해서는 이러한 현안 이슈를 상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민주시민교육은 바로 그러한 논의의 장을 전개시키는 시민의 태도를 배우는 것이다.** 우리 스스로의 민주시민성이 축적되어야, 남북 통합 이후 북한 지역의 민주화를 견인할 수 있다. 우리가 말로만 분단도로서, 강원도가 남북 교류의 교두보가 되어야 한다고 하지만, 정작 우리 스스로 민주주의 체제를 전달하고 교류할 소양을 갖추었는지 점검해야 한다. 강원도의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 네 번째, 마더센터와 웨이스티드 프로젝트가 수행하는 과업에 대한 배움이다. 마더센터를 모방한 국내의 기관이 있지만 운영 방법 면에서 모든 세대를 아우르지 못하고 있다. <공동의 거실> 처럼 **세대 통합형, 공동체 강화형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다.** 이런 공간은 가능한 접근성이 높게 다양한 수위로 있되 작은 단위의 운영 인력은 지역 사회 단체를 통하여 주민 코디네이터 등 사회적 일자리를 만들 수도 있을 것이다. 웨이스티드 프로젝트를 강원도형으로 적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강원도 모바일 상품권과 연동하여 업체 및 개인 보상 시스템을 갖추고 참여 업체의 위상과 이미지를 공공의 영역에서 보장해주는 방안으로, 이미 자원봉사센터 등과 연계된 지역 업체가 있으므로 이를 기반으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 그 밖에 이번 연수 과정에서 백범흠 국제관계 대사님을 통해 각 지역의 총영사, 대사님들과의 면담이 있었고 단시간에 볼 수 없었던 지역의 사회경제적 환경을 상세히 설명 들을 수 있었다. 또한 독일주재 강원

도민회와의 만남을 통해, 먼 타지에서도 강원도의 정체성과 연계성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 살고 계신 교민들의 사랑과 정성을 경험하였다.

- 이번 연수를 위해 모든 기관은 직접 선별, 접촉하고 마지막까지 한 곳이라도 더 보기위해 노력하였다. 이 모든 과정에 또한 백범흠 대사님의 노력과 기행위 사무처 직원들의 수고가 컸다. 사전에 학습 자료를 공유하고 미리 익혀서 소모적인 질문은 줄일 수 있었으며 내실 있는 연수가 될 수 있었다. 완전히 새로운 것을 알았던 점도 있으나, 짐작했던 것·자료를 통해 감지했던 것들을 직접 확인하고 맥락을 이해하게 된 것도 금번 연수를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장점이었다.
- 향후, 독일권 연수를 할 경우 정보 공유 및 연수처 발굴 지원을 위해 헤센주 의회와 교류의 가능성도 열어두고 왔다. 타 위원회에서 독일 연수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당 의회와 사후 연계도 고려하고 있다.

[12. 19. 자 독일 교민매체 우리뉴스]



도이칠란트

###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의원 국외선진지 연수

2019년 12월 19일 | Jong | 0 댓글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국외선진지 연수단

Frankfurt]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광도영) 소속 의원 국외 선진지 연수단(이하 연수단)이 2019년 12월 15일 대한항공편으로 프랑크푸르트에 도착, 박선유 재독한인총연합회장의 영접을 받았다.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광도영(원주 5선거구) 위원장과 허소영(춘천 5) 부위원장, 김경식(영월 1), 김규호(양구), 박병구(원주1), 안미모(더불어민주비례)의원과 백범흠 강원도국제협력대사, 도의회 사무처직원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 연수단(단장 광도영)은 오는 23일까지 도이칠란트와 네덜란드 일원에서 의정역량강화를 위한 우수해외정책사례 연구 및 교류를 한다.

16일 주프랑크푸르트총영사관과 프랑크푸르트 시청 등을 예방하고 17일에는 헛헨주 경제교육원, 헛헨주 의회 등을 돌아 봤다.

19일에는 중부도이칠란트 루어공업지역, 폐광시설 리모델링 등도 살펴본다, 또 오후 6시에는 북홀름에서 재독강원도민회(회장 박영희) 회원들과 간담회도 갖는다.

이후에는 네덜란드로 이동해, 친환경, 낙농 정책 등을 알아보며 견문을 넓히고 23일 귀국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연수단에는 지난해 11월까지 주프랑크푸르트 대한민국총영사로 근무한 백범흠 강원도국제협력대사가 함께한다. 백 대사는 1년여 만에 프랑크푸르트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롭다며 "동포들에게 즐거운 연말연시와 새해 만복을 기원한다"고 했다.

광도영 위원장은 우리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유럽의 선진 정책과 의정활동 등을 열심히 보고 배워서 도정운영에 접목시키겠다"는 기대와 각오를 밝혔다.

【유종현 기자】

# 江原日報



강원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곽도영) 국외선진지연수단이 지난 18일 독일 헤센주의회를 방문, 발전적인 의회 운영시스템에 대해 교류했다. 연수단은 오는 23일 귀국한다.

## NRW주 독일연방 석탄위원회의 '탈석탄화 로드맵' 최종 권고안 내용

## 1. 개요

- (배경) 독일의 에너지, 기후변화 정책에 맞는 구조개혁을 위한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도출을 위해 '18. 6.6. 연방정부가 위원회를 발족
  - 독일의 중장기 탈석탄화 로드맵에 대한 對정부 권고안 마련
- (위원회의 공식 명칭) 성장, 구조개혁, 고용 (Wachstum, Strukturwandel, und Beschäftigung) 위원회
  - \* 위원회의 긴 명칭으로 인해 통상 '석탄위원회' 또는 '탈석탄위원회'로 지칭
- (위원회 구성) 공동위원장 4명, 위원 24명, 연방하원의원 3명
- (경과) 9차례 회의와 현장 시찰 등을 거쳐 '19.1.26. 최종 보고서 확정
  - '18. 6. 26. ~ '19. 1. 25. 간 월 1회, 총 9회의 회의 개최
    - \* 위원회 활동 전반기에는 연방정부, 주정부, 경제계, 노조, 학계 및 시민단체 전문가들의 의견 청취·수렴에 집중
  - 탈석탄 해당지역 현지 시찰 3회
    - \* ① '18.9.24. 중부독일 탄광지역, ② '18.10.1. 라우지츠 탄광지역, ③ '18.10.24. 라인지역 탄광지역을 차례로 방문해 현장 시찰 및 주정부, 지자체, 지역 기업, 대학, 종교단체 및 시민단체 대표들과 토론회 개최
  - '19. 1.26.(토) 위원회의 최종 보고서 정부 제출
    - \* 동 보고서는 위원 28명 중 27명이 찬성(21시간의 회의결과)하여,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각계각층 인사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거의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동 보고서의 권고안이 온전히 연방정부의 정책으로 수용되리라는 전망

## 2. 주요내용

### □ 핵심 목표

- 로날트 포팔라 공동위원장은 1.26. 최종 권고안 발표 시 탈석탄화의 핵심목표를 ① 신규 일자리 창출, ② 지불가능한 전기요금 ③ 기후 보호라고 정리

### □ (탈석탄화 일정) 가능하면 2035년, 늦어도 2038년까지 석탄을 발전원으로 하는 전력생산을 완전히 중단하는 탈석탄화 추진

- \* 탈 석탄화를 2035년, 또는 2038년 완료할지 여부는 2032년 최종 결정
- 탈 석탄화의 성공을 위해 정부와 관련없는 민간 전문가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23년, '26년, '29년, 세차례에 걸쳐 중간 점검
- 중간점검 단계에서 실행에 문제가 발견될 경우 재조정 가능

### □ (화력발전 감축) 현재 약 45.4GW 규모에서 '22년까지 12.5GW(발전소 24기 생산량에 해당)를 감축(이중 3.1GW는 갈탄발전, 잔존 32.5GW)하고, '30년에는 17GW까지 축소(갈탄발전 9GW, 석탄발전 8GW)

- \* '17년말 기준 독일의 전력소비 총량의 40%가 석탄 발전
- 다만, 전력공급의 안정을 위한 유보 전력(Sicherheitsreserve)은 별도

### □ (기후변화 대응) 독일의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목표인 '20년에 1990년 대비 40%감축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동 로드맵을 통해 2030년의 60% 감축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40% 감축 목표도 최대한 달성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

### □ (경제구조 개혁) 탈석탄화 해당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 향후 20년간 해당지역에 약 400억 유로(연간 20억 유로)를 지원
  - 구체적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연간 13억 유로 지원
  - 연간 7억 유로를 해당지역에 지원하며, 이에 지원금의 사용처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이 자체 결정
- 해당지역의 디지털 인프라를 확장하고, 또한 해당지역 근교의 경제가 활성화된 지역과 연계

- 연구소 등 연방정부 산하 기관을 해당지역으로 이전시켜 향후 10년간 약 5,000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 \* 위원회는 탈 석탄화로 탄광산업 및 석탄발전사업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일자리 약 6만개가 상실될 것으로 예상
- 탈석탄화에 따른 폐광촌 지역을 계속 주거지역으로 보전할지 여부는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지역과 연계하여 결정하되, 정부가 가급적 자율적인 결정권을 보유
  
- (환경보호) 석탄에너지 반대의 상징인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NRW주)의 함바흐(Hambacher Forst) 삼림은 수천년간 보존되어 온 만큼 보전이 바람직
  - \* 함바흐 삼림 : 독일 전력회사 RWE가 동지역의 석탄 채굴을 위해 벌목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반환경단체가 벌목 반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지역
  
- (국가경쟁력 유지) 국가 경쟁력 유지를 위한 전력공급의 핵심은 지불 가능한 전기요금과 전력공급의 안정성이며, 특히 독일 GDP의 25%를 차지하는 제조업계에는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
  - 제조업의 전기료 부담은 '10년 220억 유로에서 '16년 250억 유로로 상승하였으며, 탈석탄화는 기업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
  - (지불 가능한 전기요금) 탈석탄화로 인한 추가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3년부터 일반가구 및 소기업의 송배전망 이용료 인하(연간 20억유로)
    - 화석연료 발전사가 이산화탄소 배출권 구입비용을 전력요금을 통해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과 관련하여 정부가 전력소비가 많은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위해 연간 5억 유로를 '20년까지 보조해 주기로 한바, 석탄위원회는 이를 연장할 것을 제안
    - 향후 연방정부는 전력 다소비 기업의 비용을 추가적으로 경감할 수 있는 지원책 마련
  
- (전력공급 안정화) 블랙아웃 방질르 위해 향후 스트레스 테스트와 같은 사전 검사 체계 강화, 친환경 가스발전소 인허가 절차 간소화, 재생에너지 전력비중 확대 및 비상시 대비 전력 생산을 위한 여유 화력발전소 보존

- (배상금) 탈석탄화로 인해 발전소를 폐로하는 업체에 배상금 지급
  - 노후 발전소일수록 배상금을 축소하되 배상금 책정기준은 이미 기존에 발전중단에 대한 배상사례를 활용
    - \* 현재 상시 가동을 중단하고, 비상시 대비전력 생산을 위한 시설로 유지하고 있는 갈탄 발전소의 경우 1GW 당 6억 유로 배상금 지급
  - 석탄발전소(총 23GW)에도 배상금을 지급하되, 갈탄 발전소에 비해 수익성이 낮은 만큼, 공개 입찰을 통해 폐로 배상금 지급
    - \* 연방정부가 입찰시 총 폐로용량을 제시하고, 신청업체 중 최저 배상금을 요구하거나, 가동중단을 통해 최대 이산화탄소 배출량 절감업체를 우선 선정
    - \* 위원회는 배상금 관련 구체적 권고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으나, 동위원회의 카이 니버트(Kai Niebert) DNR(환경시민보호단체) 회장은 '20년까지 약 60억 유로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
  
- (미래 에너지 시장 선도) 재생에너지 분야 글로벌 역량 강화를 위해 코트부스(브란덴부르크주) 공대와 아헨공대(NRW주)에 지열, 에너지 저장기술, Power-to-X 기술연구소 설립 논의
  
- (향후 일정) 정부 입법을 통해 이행 기반 마련 제시
  - \* 위원회 권고안을 수용하여 정부정책으로 확정하기 위해서는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합의가 필요한 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앙겔라 메르켈 총리는 주총리들과 회의 예정

### 3. 권고안에 대한 각계 반응 및 평가

- 정부 및 여당
  - (페트 알트마이어 연방경제에너지부 장관) 동위원회의 제안은 엄청난 진전이며, 정부는 탈석탄화로 인한 전기요금 인상을 막고, 화석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의 성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언급
    - 또한, 탈석탄화로 발생하는 비용 명목으로 이미 예산을 편성해 놓은 만큼 정부는 신속히 재정지원을 실행할 수 있다고 자신감 표명
    - 탈석탄화 이행을 위해서는 해당지역 지원 및 일자리 창출 관련법과 가동중단 발전소 선정관련 법 등 2가지 법이 필요하다는 입장

- (기민/기사 연합) 탈석탄화 과정에서 전기요금 안정화와 제조업강국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원활한 전력공급 유지에 무엇보다 유의해야 한다는 의견
  - 탈석탄화 해당지역인 작센 주 미하엘 크레취만 주총리(기민당)는 탈석탄화 일정과 관련 조치의 법적 근거를 하루 속히 마련해 동 정책이 법적 구속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
- (마르쿠스 죄더 기사당 대표) 바이에른 주지사인 동대표는 남부 독일 입장에서는 동 권고안이 회의적이라고 논평하면서도, 전기요금 및 전력공급 안정화를 위한 구체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언급

#### □ 야당

- (녹색당 아날레나 베어복 공동대표) 위원회 권고안은 최저수준 (minimal)의 절충안으로서 파리 기후협약에 따른 '38년까지의 이산화탄소 배출량 85~90%(1990년 대비)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탈석탄화가 '22~'30년 안에 종료되어야 한다는 의견
- (좌파당 카트야 키핑 대표) 위원회 권고안은 탄광업계 로비의 흔적을 명백히 드러내주는 증거품이라고 언급

#### □ 경제계

- (독일산업협회 BDI 및 독일상공회의소 DIHK) 디터 켐프 BDI 회장과 에릭 슈바이처 DIHK 회장이 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여, 정부 보조금 등 기업의 전기요금 부담 경감 방안을 권고안에 반영함으로써 경제계의 핵심 요구사항이 관철
- (독일 사용자연맹 BDA) 슈테펜 캄페터 BDA 회장은 성급한 탈석탄화가 독일 경제 및 일자리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탈석탄화 과정에서 수차례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바, 3차례에 걸쳐 중간점검을 거치도록 하는 입장 반영
  - \* 알트마이어 경제에너지부 장관은 '30년 한차례만 중간점검을 가질 것을 제시하였으나, 권고안은 '23년, '26년, '29년으로 반영

## □ 에너지업계

- 로프 마틴 슈미츠 RWE 회장은 '23년까지 구조조정으로 대대적 해고 사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며, 함바흐 삼림 보전에 따른 사업 계획 재조정으로 인해 추가 비용 발생 우려
- Uniper는 총 15억 유로를 투자한 신규 화력발전소가 '20년 가동예정이었으나, 동 위원회의 미가동 발전소에 대한 허가 취소 권고에 따라 투자금 전액 손실 및 1,000여명의 실직 우려

## □ 시민단체

- 독일의 대표적 환경단체인 환경·자연보호동맹(BUND), 그린피스, 부이르(함바흐 삼림 주변도시) 시민 단체 등은 동 위원회 권고안에 대대적 환영 입장 표명
- 탈석탄화 종료가 '38년으로 제시된 것은 미흡하지만, 수년간 정체상태에 있던 정부의 에너지 정책이 금번 권고안을 통해 미래지향성을 찾게 된 만큼 중요한 시그널이라고 긍정 평가

## □ 금융

- 다수 금융계 애널리스트들은 금번 탈석탄화 로드맵에 폐로 석탄 발전소 배상금 지급이 언급된 점으로 미루어 에너지업체 주식 투자의 수익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예상
- 한편, Eon과 사업분야 교환을 통해 향후 청정전력에 집중하기로 한 RWE의 경우 탈석탄화의 최대 수혜자가 될 수 있다고 전망

## □ 언론 평가

- 독일 언론은 대체로 금번 권고안을 “대 타협”, 또는 “교육지책의 절충” 등으로 표현하며, 탈석탄화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각계각층의 이해충돌의 근간은 결국 “돈”이었다고 결론(제1 공영방송 ARD)
- \* 경제계, 특히 전기요금에 민감한 제조업은 수십억 유로에 달하는 정부의 전기료 지원금에 탄광지역들이 소재한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작센주, 브란덴부르크주 및 작센 안할트 주는 연방정부의 경제구조 개혁 지원금에 사활을 건 바, 위원회 권고안은 양측의 손을 모두 들어준 것으로 평가

□ 권고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우려

- 관련 전문가들은 위원회의 권고안이 비용의 적정성과 정부의 예산 확보 방안 등에 부정적 의견 제시
- (비용) 탈석탄화로 인해 비용은 전기요금 경감 지원, 배상금, 노동력 재교육, 인프라 구축 등에 있어 향후 20년간 800억 유로이상 발생할 것으로 예상
  - (전기요금) 권고안이 제시한 연간 약20억유로 수준의 송배전망 사용료 경감이 전기요금 폭등을 막기에 충분할 것인지에 대해 의문 제기
  - (배상금) 권고안에 발전소에 대한 배상금 문제를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수십억 유로의 발전소 배상금이 발생할 것이라는 전망 제기
  - (사회적비용) 폐광, 발전소 중단 등으로 퇴직자 대상 연금만 50억 유로로 추산되며, 실직 청장년 노동자 대상 재교육, 재교육기간 동안의 대체 임금 지급 등 비용 발생
  - (교통인프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긴급지원에 약15억 유로 소요
  - (연구소 이전 및 신설) 연구소 등 연방정부 산하기관 이전 및 신설과 일자리 창출에도 비용 발생
- (예산 확보 문제) 현재 대연정 정부에서 탈 석탄화에 요구되는 예산 마련이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소비자 및 기업의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지원이 세금 인상으로 연결될 것으로 전망.
  - '23년 정부의 재정적자가 77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최근 독일의 경기 전망 하향 우려를 고려할 경우, '30년에는 재정적자 규모가 1,000억 유로에 달할 가능성 존재
  - 특히, 현 정부가 임기 중 통일연대세의 순차적 폐지를 공약한 상황에서 탈석탄화로 인한 추가 예산 확보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전망.